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43호

Thursday, April 30 2026 A



UAE 탈걸프 트럼프 웃고 빈 살만 운다

UAE가 내달 1일(현지시간) OPEC-OPEC+ 탈퇴를 선언하며 사우디 주도 국제유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 각자도생하는 모양새에 세계 에너지 판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간 안보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모습. [AP=연합뉴스]

UAE, 원유 증산막는 사우디에 불만 역내 패권 다툼에 외교갈등도 커져 이란전 계기로 미·이스라엘과 연대

이란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들의 각자도생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내달 1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확대 협의체 OPEC+(플러스) 탈퇴를 선언하면서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해 온 OPEC에 타격을 주는 발표로, 세계 에너지 판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간 안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UAE는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경제 비전과 변화하는 에너지 구조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탈퇴

방침을 알렸다. ‘석유 카르텔’로 불릴 만큼 산유국 이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서 UAE는 왜 발을 뺄 것일까. 석유를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사우디와 ‘더 많이’ 팔고 싶은 UAE의 이해가 충돌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UAE는 OPEC 내 3위권 산유국이다. 이란전쟁 전 하루 340만~360만 배럴 안팎을 생산해 OPEC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산유량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늘리고 싶은데도 사우디가 주축인 OPEC에 발목이 잡혀 증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UAE는 탈석유 시대를 오랫동안 준비하며 무역·관광·운송 등으로 경제를 다변화해 온 덕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비석유 부문에 기댈 수 있게 되면서 유가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유가가 조금 낮더라도 석유를 최대한 많이 팔아 당장 수익을 늘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단 뜻이다. “UAE는 자국 재정 균형에 필요한 유가 수준이 (사우디보다) 낮아 유가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워싱턴포스트)는 분석도 있다.

반면 사우디는 GDP의 40~46%가량을 석유 부문에 기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쌓이던 차에, 사우디와 외교적인 갈등도 커졌다. 양국은 본래 이란을 함께 견제해 온 협력국이었지만 최근 몇 년 새 역내 패권 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졌다.

2014년 예멘 내전 발발 당시, 처음에는 함께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추후 지지 세력이 달라지며 사실상의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OPEC 탈퇴의 결정타가 된 것은 이란전쟁이었다. UAE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주변국인데, 인근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길 주저하는 걸 보며 걸프국 공동 안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애먹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희소식이다.

가디언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사우디 위신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그간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비판해 왔다면, 마침 아부다비 국영 에너지그룹 아드녹(ADNOC)이 미국 천연가스 사업에 “수백억 달러”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 양국이 더욱 밀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주리·한지혜 기자

국제유가 7거래일 연속 상승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소식이 전해진 지난 28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솟구쳤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26달러에 거래됐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서부텍사스유(WTI)도 99.93달러로 하루 전보다 3.7% 올랐다. WTI는 4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29일 오후(한국시간) 브렌트유는 111달러대, WTI는 99달러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중동 사태, 호르무즈협협 변수 탓에 단기 전망은 유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 로이터통신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유가 하락 요인이지만, 해협 봉쇄 상황에서는 (UAE 탈퇴로) 원유 공급이 늘어도 갈 곳이 없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OPEC 체제에서 주요 산유국이 이탈하는 게 원유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 시장은 CNBC에 “해협이 재개방되면 UAE는 모든 여유 생산 능력을 활용해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OPEC 체제 균열로 석유 공급이 확대되고, 한-UAE 간 우호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공급전 다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우디와 UAE 간 주도권 경쟁 심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한국에도 문제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호르무즈협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5월 중 최악의 차질을 끝내고 연말까지 전쟁 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상승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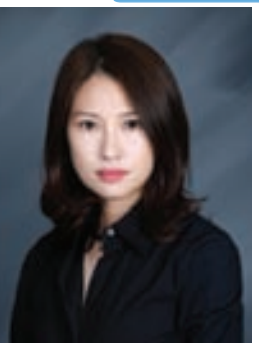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찰스 3세 “우리 없었다면 미국은 프랑스어 썼을 것”

(영국 국왕)

온갖 거친 발언으로 세계 정상들을 당혹하게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위트 있는 풍자에는 맥을 못 쳤다. 국왕 즉위 이후 첫 미국 국빈 방문 자리에서 찰스 3세는 유머와 상대를 향한 절제된 찬사를 교차시키며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풀어냈다.

찰스 3세는 28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이 아니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프랑스와의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해 북미에서의 프랑스 영향력을 축소시킨 것을 빗댄 유머였다. 트럼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놓고 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영국인들도 1814년 백악관을 재건축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영국군이 백악관을 불태운 사건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것이다.

찰스 3세의 노련한 언사는 앞서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빛났다. 연설 초반 그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 오늘날 우리는 언어를 빼고는 미국과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 객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오스카 와일드의 냉소적 유머를 인용해 양국 간 깊은 동질감을 우회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다.

찰스 3세는 이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250년 전의 격렬한 분쟁 속에서 우리는 우정을 다져왔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영국과 미국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화해와 갱신,

그리고 놀라운 협력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3박 4일간 펼쳐질 영국의 ‘왕실 외교’가 양국 간 긴장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찰스 3세는 양국의 동질감을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동맹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뼈 있는 말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기초 원칙들이 저절로 지속될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80여년간 서방 세계가 구축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균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전민구 기자



28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는 모습.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이후 35년 만이다. [AFP=연합뉴스]

버지니아, 카운티 태양광 전면 금지 제동

에비게일 스펀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역정부의 태양광 시설 금지 조례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버지니아 내 개별 카운티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개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 이에 주 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 내 카운티의 약 3분의 2가 대규모 태양

광 발전 시설을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새 법은 이러한 전면적 금지 조치를 막고 태양광 프로젝트가 최소한 지역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심사 권한이 안전하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운티 정부는 여전히 개별 태양광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개발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의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태양광 업체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비용 안전화를 위해 태양

광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수익을 창출할 권리도 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카운티 정부와 주민들은 지역 경관 훼손, 농지 감소, 지방자치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지역의 토지 이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버지니아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개발을 둘러싼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윤미 기자

버지니아주, 뒷마당 ‘간이주택’ 건설 가능

버지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은 지역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로 승인된 주택에 따라 곧 자신의 뒷마당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지방 정부가 자격을 갖춘 단독 주택 부지에 부속 주거 단위(ADU) 설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ADU는 주거용 건물과 같은 부지에 지어지는 소규모 보조 주택으로, 가족 용이나 임대용, 그리고 다세대 거주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된다.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업자 김모씨(65)씨는 주택 소유

주들이 노부도, 성인 자녀 및 임대 수익을 위해 부속 주택(ADU)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ADU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온전히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주법은 많은 지역에서 ADU를 단독 주택 부지에 허가된 용도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정부가 특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는 여전히 건축 법규, 공공시설 관련 요건, 정화조 및 하수도 제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성한 기자

3번 ‘간이주택’으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8학년때까지 사주지 마세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유 시기를 8학년 이후로 늦출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학생들이 8학년을 마칠 때

까지 스마트폰 소유를 늦추도록 학부모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불안감,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

다고 지적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위는 스마트폰 대신 인터넷 기능이 제한된 ‘키즈폰’이나 피쳐폰을 대

안으로 제시했다.

긴급 연락은 가능하게 하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용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는 가정이 충분히 늘어나야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이 또래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캠페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일(금)	66-46	4일(월)	73-57
2일(토)	58-43	5일(화)	77-55
3일(일)	62-44	6일(수)	78-63

4월 30일(목) 67-44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p>센터빌 중앙상교회 근처 5 에어커 전월주택</p> <p>\$1,099,000 특점</p> <p>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욕 3</p>	<p>레스턴 싱글홈 타운센터/메트로 근처</p> <p>\$879,000 특점</p> <p>차고 2, 방 7, 욕 3, 워드아웃 부엌</p>	<p>현턴 럭셔리 타운홈</p> <p>\$850,000 특점</p> <p>차고 3, 방 3, 욕 3</p>
--	---	---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NEW HOME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CAR WASH

찾아드리고 매매해 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새차장 리스팅 완비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렌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 있습니다

메니지먼트만하면서 수입좋은 매물 있습니다

50만불에서 3백만불

바이오/생명공학 기업

CGMP 시설 및 LAB

협상/구입해드립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주미대사관과 첫 상견례

문인석 총영사와 한인 정신건강 협력 논의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강고은)는 지난 4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문인석 총영사, 윤주경 참사관과 상견례를 갖고 한인 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고은 이사장과 천신 테일러 소장이 참석해 대화를 나눴다.

문인석 총영사는 50여 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개인의 안녕과 가족 유대, 한인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가정상담소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 지역사회를 지켜온 기관의 탄력성

과 결속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윤주경 참사관은 지난해 51주년 기념 오찬을 계기로 가정상담소의 역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됐으며, 앞으로 한인 사회 정신건강 문화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강고은 이사장은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주미대사관에 감사를 전하며, 반세기 넘게 활동해온 가정상담소가 한인 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인 사회에 더욱



왼쪽부터 윤주경 참사관, 문인석 총영사, 강고은 이사장, 천신 테일러 소장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체 중심 문화 속

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인식 차이로 인해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상담 문화 개선과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한인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신 테일러 소장은 한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인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날 만남은 한인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특히 취임 초기인 강고은 이사장과 문인석 총영사의 한인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가 한껏 드러났다는 평가다. **홍알벗 기자**

문인석 총영사, 미주한미동맹재단과 간담회 가져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문인석 워싱턴 총영사는 27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대사관 측에서는 문인석 총영사와 이길현 보훈관이 미주한미동맹재단에서는 최태은 회장을 비롯해 류태호 부회장, 그리고 이신욱 이사가 참석했다.

재단의 주요 활동 소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최태은 회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피나는 노력과 여기에 대사관의 뜨거운 성원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인석 총영사는 “한미동맹과 차세대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



왼쪽부터 이신욱 이사, 류태호 부회장, 최태은 회장, 문인석 총영사, 이길현 보훈관

드를 위한 재단의 뜻깊은 활동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노고를 치하하며, 계속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류태호 부회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활동은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달라보일 수 있지만 본질을 하나와 같다”며 “동포사회이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영사관과 재단이 협력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김성한 기자**

▶ 2면 '간이주택'에서 이어집니다

법률에 따르면, ADU는 거주지와 동일한 부지에 위치해야 하는 데 거실, 침실, 주방 및 위생 시설을 포함한 독립적

인 생활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업계 추산에 의하면 북버지니아 지역의 독립형 부속 주택은 크기를 비롯해 마감재 및 부지 조건에 따라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 이상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한 주민은 “높은 생활비 때문에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이 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반겼다. **김성한 기자**

5월달 첫 순회영사는 VA 피터스버그에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5월 9일(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버지니아 프린스 조지스 소재 Love First 교회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리가능한 업무로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상실, 그리고 국적이탈신고 등이 있다.

순회영사를 찾을 때, 모든 서류는 원

본을 지참한 상태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고하면 된다.

주소: 3030 River RD, Prince George, VA 23875
문의 및 안내: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피터스버그 한인회 804-339-7447

홍알벗 기자

'깊은 감동과 영혼을 깨우는 선교음악회'

5월 3일, 테너 최정규 목사 독창회

워싱턴지역 한인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복음도 함께 전하는 뜻깊은 음악회가 열린다.

메릴랜드의 새벽빛 교회와 글렌버니 침례교회는 오는 5월 3일(일) 오후 5시, 메릴랜드 글렌버니(Glen Burnie) 소재 글렌버니 침례교회에서 테너 최정규 목사의 독창 선교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새벽빛 교회 창립 17주년과 글렌버니

침례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선교음악회는 ‘두고 온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덧붙였다. 한편, 테너 최정규 목사는 현재 새벽빛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문의: 410-292-0446



홍알벗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쿼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립대사 명령과 교수승격 사사
- 성경중의대학 중의대학사
- 임상 25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Top 50 Mortgage Company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잊혀진 4·29, 교육도 계승도 없다

UCLA 박계영 교수가 본 LA 폭동

기념식 없는 현실 '경고등' 한·흑 갈등 축소 해석 경계 구조적 문제 재조명 시급 정치력 취약, 공동체 한계



'LA 라이징'을 들고 있는 박계영 교수.

34년 전 오늘(4월 29일)은 LA 한인사회에 아픔이 새겨진 날이다.

그날의 아픔은 지금 잊혀지고 방치되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 관련 행사 하나 열리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과제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지는 4·29를 장기간 연구해온 UCLA 박계영 교수(인류학과·아시아학·아메리칸학)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인사회가 마주한 과제를 짚어봤다.

박 교수는 4·29를 단순한 인종 갈등

이나 문화 충돌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이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닌 당시 미국 사회의 법적·경제적·정치적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반복된 경찰 폭력, 경제 재편에 따른 빈곤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4·29를 '한흑 갈등'으로 축소하

는 해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저서 'LA 라이징(LA Rising)'에서 이를 인종·계급·문화가 얽힌 인종화된 계급 갈등으로 규정하며 당시 갈등은 흑인과 한인뿐 아니라 라틴계 등 인종 소수자 간 긴장과 경쟁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인사회 내부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경향이 단순히 문화적 오프해나 일방적 피해로만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갈등의 구조적 본질을 가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업주들의 고객 감시 관행 역시 생존 전략을 넘어 인권 침해나 인종적 편견으로 비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감정이나 문화 차이로만 환원할 경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위치의 문제를 놓치게 돼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영 기자

DMV, 이민자 정보 노출 논란

운전면허정보 외부 공유 추진 불체자 100만명 유출 우려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재직 시절 법 개정(AB 640)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100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정부가 공항 등 연방 시설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주정부는 연방 기준인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을 충족하기 위해 DMV 데이터를 전미자동차관리협회(AAMVA)에 제공할 계획이다.

AAMVA는 전국 DMV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으로, 개인의 면허 중복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주간(State-to-State)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정보다. 해당 시스템에는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가 포함되며, 번호가 없는 경우 '99999'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체류 신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불법체류자를 식별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주 정부는 AB 640 통과 당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시민권 취득 과정 또는 이민 단속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보 이동을 위해서는 약 5500만 달러의 예산 승인과 관련 법률 개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준 기자

LAPD 드론, 3500회 투입

사생활 감시 우려 커져

LA경찰국(LAPD)이 지난해 각종 사건 현장에 3500회 이상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운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법 집행 과정의 효율성은 향상됐지만, 사생활 감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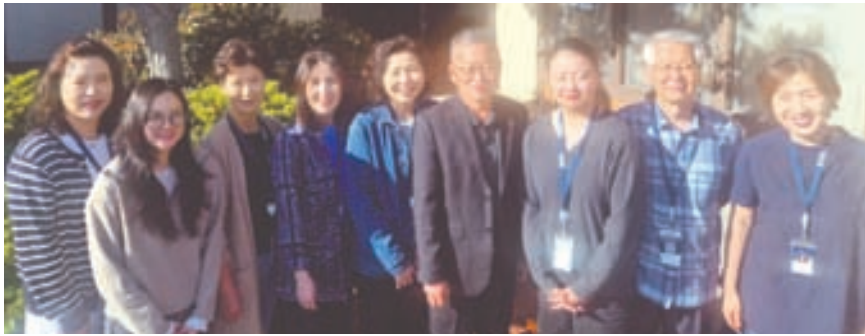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LAPD가 LA경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은 주로 긴급 신고 대응이나 현장 지원 요청에 활용됐다. 최근에는 주해 침입 사건과 무장 용의자 신고 등에도 투입됐다.

LAPD는 드론을 향후 스트리트 점거 행위 대응과 공휴일 불법 폭주 단속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드론은 크기가 작고 소음이 적어 식별이 어려운 만큼, 감독 없이 대중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강한길 기자

"시민권, 가장 강력한 신분 보호 장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내달 9일 무료 신청 대행 저소득층은 수수료 감면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준비 중인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스태프.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신청 대상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일대일로 도와준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권 시험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데, 마루면 미물수록 제도 변화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칼,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보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

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

다. 센터 측은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 강화로 연방 당국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경범죄 기록 등을 살펴보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반도 운영한다. 수업은 128문항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과 USCIS 최신 정책에 맞춰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20명이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최대 1만9000불 렌트비 지원

저소득 시니어·장애인 대상 30일 정오 마감 서둘러야

LA시가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렌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마감은 이달 30일 정오다.

이번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50% 이하이고 렌트 부담이 크거나 퇴거 위험에 놓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AMI 30% 이하 가구나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쓰는 가구가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1~2인 가구는 1만2510달러, 3~4인 가구는 1만5606달러,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만9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 차례 지급되며 직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 예산 약 1370만 달러가 투입된다. LA시는 약 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은 LA시 가족투자국이 주관하고 주택국이 협력해 운영한다.

신청과 안내는 지역 패밀리소센터와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LA시 공식 포털에서 가능하며 8개 패밀리소센터에서는 대면 신청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강한길 기자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페어팩스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리치몬드 VA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엘리트 시티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페이트빌 NC 5085 Morganton Road, Suite 300
Fayetteville, NC 28314

보스톤 MA 100 Summit Drive,
Burlington, MA 01803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주변 유학생 5명 중 4명 일 못구하고 한국행”

28일 K-무브 잡 페어 현장

심사 강화에 취업 문턱 높아 업체들도 유학생 채용 꺼려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냉랭하다.

특히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난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심사 강화 기조 속에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LA무역관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공동 주최한 ‘2026 K-무브 잡 페어’가 28일 USC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중앙일보를 포함해 16개 기업이 참여했고,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 등 70여 명의 구직자가 면접과 구직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유태대에서 올해 5월 졸업 예정인 임희원(23)씨는 “주변을 보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80% 이상 되는 것 같다”며 “유학생

들은 취업을 해도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을 알아보는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 5월 졸업 예정이라는 한 참가자는 “요즘은 취업도 어려운데 인턴 경험이 없으면 더 힘들다”며 “경력을 쌓기 위해 인턴을 찾고 있지만 기업들이 비자 문제나 행정 부담 때문에 인턴 채용 자체를 줄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직자 김재환(28·캘리포니아주립대 노스리지·회계학)씨는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면접 전부터 ‘비자 스폰서는 어렵다’는 조건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어떤 기회라도 얻고 싶어 여러 곳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36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했지만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취업난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5년 4



코트라와 LA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2026 K-무브 잡 페어’가 지난 28일 USC 캠퍼스에서 열렸다.

김상진 기자

분기 기준 최근 대학을 졸업한 22~27세 청년 실업률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졸자 실업률 약 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졸자의 불안전 고용률도 높다. 같은 분석에서 대졸자의 불안전 고용률은 42.5%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사 학

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대졸자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들도 유학생 채용에 더욱 신중한 분위기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농심의 모세 양 HR 어소시에이트는 “입사 후 회사와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태도와 직무 이해도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스폰서십은 가능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인력 운용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재 적합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의 경우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하면 채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기업들이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에릭 윤 FNS 수석 인재채용 책임자는 “특히 STEM 전공자는 OPT 기간이 길어 H-1B 비자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코트라 측은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연결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박지혜 코트라 LA무역관 과장은 “학생들에게 비자 지원 여부가 중요한 조건인 것은 맞지만 직무 적합성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과 학생이 서로 맞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평일엔 법률보조원, 주말엔 한식 해설사

버지니아 한식 투어 운영 김수민

정장 차림으로 법률 문서를 검토하던 손이 주말이면 젓가락을 들고 한식 해설사(스토리텔러)로 변신한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김수민 씨의 다채로운 삶이 지역 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씨는 평일에는 올드타운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보조원인 ‘패러리걸(paralegal)’로 근무한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활동 무대는 페어팩스 카운티 애난데일 지역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 투어 브랜드 ‘버지니아리서스’의 가이드로 나서 한식당과 한인 비즈니스, 비한인 주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투어는 단순한 맛집 순례에 그치지



김수민씨가 버지니아리서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버지니아리서스 웹사이트 캡처]

않는다. 참가자들은 약 3시간 동안 애난데일의 한인 식당 5~6곳을 돌며 음식을 맛보고 한국 문화와 지역 형성 과정, 최신 K-드라마와 K-팝 이야기까지 함께 접한다. 음식과 문화, 이야기가 결합된

‘체험형 투어’다.

김씨는 “워싱턴DC 일대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코리아타운 탐방이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2012년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북버지니아에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한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가이드 역할을 맡게 됐다.

김씨는 “한식당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메뉴 선택과 음식 설명을 나에게 맡기곤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무척 즐거웠다”며 “그 경험이 지금의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리서스’는 2024년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업 등록을 도와

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애난데일에는 지하에 위치한 식당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숨은 맛집도 많다”며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차로 지나가지만 할 뿐 직접 들어와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투어의 효과는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다. 김씨는 “음식 투어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한식 탐험이 시작된다”며 “재방문이나 재참여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씨는 수익 일부를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밀스 온 휠스’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직장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김씨는 향후 센터빌 등 인근 지역으로 투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직장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김씨는 향후 센터빌 등 인근 지역으로 투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아동 성착취물 소지 적발

20대 남성 캔리강 체포

아이오와시티 지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아이오와주 지역 방송사 KCRG-TV9에 따르면 아이오와대 경찰은 캔리강(23)씨를 아동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등 5건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오와대 공공안전국이 제출한 형사소장에 따르면 강씨의 전자기 2대와 이메일 계정 2개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약 50장과 영상 10건이 발견됐다. 일부 자료에는 유아가 포함돼 있었으며 결박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해당 자료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강씨의 기기 등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영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40
300m
뉴타운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icott City, MD 21042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국 올해 사망이 출생 앞질러

독일 저출산 쇼염국에서 올해부터 매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현지시간) 통계청이 2024년 중반 인구 통계를 근거로 장래 영국 인구를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2024년 중반~2034년 중반에는 10년간 총 640만명이 태어나고 685만명이 사망해 사망자와 출생아 수 차이가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4년 중반 국가연금 지급 가능 인구는 2024년 중반보다 14.6% 증가한 1240만명으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중반 66세였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7세로 상향 조정되고 고령 인구의 두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된 것이다.

같은 기간 아동(0~15세) 인구는 1100만명으로 12.7%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비율도 18%에서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 연령 인구는 4580만명으로 3.4% 늘어 고령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할 전망이다.

ADVERTISEMENT
2024~2049년의 25년 기간을 비교하면 고령 인구는 23.7% 늘겠지만, 노동 연령 인구는 5.1% 증가하고 아동 인구는 16.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앞서 2022년 중반 기준의 인구 추계에선 장기적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예상치를 1.45명으로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1.42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보건, 사회복지 부담은 커졌으나 영국 사회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 방송은 보도했다.

연금 컨설턴트 LCP의 스튜어트 맥도널드 인구책임자는 “인구 고령화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국가연금, 나아가 공공 재정에 부담을 더할 것”이라

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일할 걸로 기대하는 게 공평한지 등 어려운 논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 스코비 넷필드트러스트 연구 부국장도 “말년을 보내는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공공의료비 80% 이상이 병원 치료에 들어가고 그 대부분은 응급 치료에 쓰인다”며 최고령 인구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유럽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작년 출생아 수는 2차대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 전역에서 65만4300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3.4% 감소한 수치로 2차대전 이래 가장 적은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사내 기자



이젠 미국 여권에도 트럼프 얼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국무부가 준비 중인 한정판 기념 여권.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금색으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표지 안쪽에 담겼다.

인니 열차 사고 사상자 100명 넘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외곽 도시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사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29일 인도네시아 방송사 콤포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자바주 브카시에 있는 동브카시역 선로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로 이날까지 15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쳤다.

사고 초기 사망자 수 14명, 부상자 수 84명으로 집계됐으나, 추가 집계 과정에서 모두 늘었다.

두디 푸르와간디 인도네시아 교통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피해자 수는 106명”이라며 “부상자 91명 가운데 38명은 퇴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콤포스TV는 별도 기사를 내 뉴스 제작 지원 업무를 한 자사 직원 누르 아이니라 마디나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며 애도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7시 30분쯤 회사를 나선 뒤 통근 열차(KRL)에 탔다가 희생됐다.

이번 사고로 다친 엔당 쿠스와티(40)의 남동생은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누나가 사고 다음 날 오전에 구조될 때까지 10시간 동안 객차 안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상자가 너무 많았고 누나는 마지막에 구조된 3명 가운데 한명이었다”며 “누나는

(객차 안에) 오래 갇혀 있는 동안 시신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쯤 자카르타에서 25km가량 떨어진 외곽도시 서자바주 브카시에 있는 동브카시역 인근 선로에서 발생했다.

자카르타와 브카시를 잇는 통근 열차가 택시와 먼저 충돌했고, 이어 자카르타와 제2 도시 수라바야를 오가는 장거리 열차가 1차 사고로 같은 선로 위에 멈춰 있던 통근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망자는 모두 여성 전용 객차에 탄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열차 잔해에 깔려 숨졌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열차끼리 충돌하기 전에 통근 열차와 선로에서 충돌한 그린 SM 택시의 경영진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였던 해당 택시는 차단기가 없는 선로 위 건널목에 갑자기 멈췄고, 택시 기사는 사고 직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대중교통 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 관리 기준을 확인하고, 그린 SM의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운영 허가 일시 정지나 면허 취소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승 기자

“종량제 봉투, 경매 사이트에도 올랐다”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에 따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인 지바현의 이치하라시는 29일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지정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0일까지는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봉투 대신 투명한 비닐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허용하는 잠정 조치를 개시했다.

이는 시 지정 쓰레기봉투의 품절 현상이 지속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까지 ‘구매 불가’를 호소하며 이치하라시에 접수된 민원은 60건을 넘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공급 업체는 예



쓰레기 종류별로 설치된 일본 오사카의 쓰레기통. [연합뉴스]

년과 같은 수준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정 쓰레기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오른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사재기에 동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도 오는 6월 말까지 지정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투명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조는 지정 쓰레기봉투 문구 인쇄 때 사용되는 시너 공급난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문구를 찍지 않은 채 색깔로만 쓰레기 종류를 분류해 버리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불거졌던 쓰레기봉투 공급 문제가 유사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지정 쓰레기봉투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돼 있지 않다. 도쿄 23구의 경우도 쓰레기를 분류해 배출하지만 지정 쓰레기봉투는 없다.

김지혜 기자

“日, 통행료 내지 않았다”...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를 가득 실은 일본 유조선 1척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

29일 니혼게이지아신문과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일본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인 운송하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호’가

전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만 공해상에 진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적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부터 걸프 해역에 발이 묶여 있다가 62일 만에 항해를 재개했다.

이번 통과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

부는 이 과정에서 별도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끈질긴 협상이 거둔 성과”라고 강조했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양국의 역사적 우호 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했다.

고성표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워터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i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irlawpllc.com



시원한 한입, 깊은 감칠맛의 완성
PREMIUM RADISH KIMCHI (SLICED/DICED)

무쪽김치 x 왕산깍두기



왕산 무쪽김치

PREMIUM SLICED RADISH KIMCHI

\$14.99 **\$19.99**
 4LB

왕산 깍두기

PREMIUM DICED RADISH KIMCHI

\$7.99 **\$10.99**
 32OZ



본진중우할자가있을수있습니다. 일부품목은사정해파라조기종료되는수량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6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8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Pl.
Springfield, VA 22181

Ashburn, VA
4300 Fairwood Hunt Place
Ashburn, VA 20147

Ellicott City, MD
881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58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9

Rockville, MD
1902 Vine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황우여·원희룡·정진석 ... 구인난 국힘, 베테랑 차출론

(연수갑)

(서귀포)

(공주·부여·청양)

미니 총선급 판 커진 재보선

국힘 지지율 최악 속 인물찾기 비상 당 안팎 "중량급 인사 등판 땀 반전" 하남갑에 유승민 이름도 거론돼 원·유 "당 요청도 없는데 생각 없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베테랑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시·도지사 선거 출마로 재보선 판이 '미니 총선' 규모로 커졌지만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 여당으로 크게 기울어질...

올어린 채 닷을 올렸다. 게다가 재보선 대상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원래 민주당 지역구였던 터라 민주당의 가용 인력도 더 풍부하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27일 경기 하남갑에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의원을 각각 전략 공천했다. 당선 안정권인 호남보다 승부처인 수도권에 중량급 있는 인사들을 선제적으로 전면 배치한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 공천도 속도가 느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하남갑 등 9개 지역구 후보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5일까지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이름값이 민주당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이용 전 의원

(하남갑), 정승연 당협위원장(연수갑),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제주 서귀포) 등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민주당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팎에선 '베테랑 차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진 의원은 "전국 인지도를 갖춘 중량급 있는 인사가 등판하면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 인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이곳에서 4선을 지낸 정 전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된 박수현 의원에게 불과 2.24%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정 전 실장 또한 29일 중앙일보에 "당이 1석이라도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책

입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초선 의원은 "정 전 실장을 내세우면 '내란 프레임'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당내에선 ▶연수갑에서 4선을 지낸 황우여 전 대표(연수갑) ▶재선 제주 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서귀포) ▶중도층에 호소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하남갑)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은 출마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황 전 대표는 "갑자기 출마하는 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원 전 장관과 유 전 의원 측은 "당에서 강력한 요청도 없는데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베테랑 차출에 회의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낙하산 공천을 하는 반면, 우리는 지역을 지켜온 사람을 내세우고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재보선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들의 출마 설득을 위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장 대표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임 시절 조성한 흥제천 인공폭포 인근 카페에서 청년 공약 등을 발표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오 후보를 우회 지원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오 후보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규·류효림 기자



정청래, 청와대 하정우·전은수 영입 장동혁, 오세훈 없는 오세훈 지원유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전 청와대 시민기획수석, 정 대표,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대문구 카페폭포에서 열린 청년 생활밀착형 공약 간담회 '청년 PICK 공약단·손소리위원회 합동 공약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은 농어민 희생 결과라며 ... 삼성·SK 이익 나누자는 여론

(FTA 시장 개방)

기업 이익 일부 사회 환원론 나와 전문가 "반시장적인 발상" 우려

당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익의 사회 공유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호황은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

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다.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29일 "반도체 기업에 전국각적 지원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책무에 대한 농업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

라와 협력 기업,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금융 지원 방안이 담겼다. 그런 만큼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1년 1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증시 악영향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실제 이익 공유 추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턱대고 나눠 갖자는 건 청년 세대 인식과 맞지 않는다"고

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이 내세우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업은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정부는 그 돈으로 성과를 나누면 된다"며 "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이찬규 기자

"통일은 한편으론 폭력적"이라는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 인식 약화와 관련한 청년자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은 독일식 모델, 베트남 모델, 개성공단 모델 3개가 있었는데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 모델도 불가능하다. 개성공

단 모델은 답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출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을 외칠수록 우리는 통일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건 평화의 제도화"라

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한반도 열리면 개성공단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를 공고화·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금강산을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진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편적 가치인 통일을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북핵·전쟁 위협이나 막대한 국방비, 인도적 위기의 심화, 이산가족 문제 등을 비롯한 분

단 비용은 통일 포기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안보 사안에 대해 송미(崇美)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면서 "미국의 (구성 발언을 이유로 한)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고 맞지 않는다면 '빨리 풀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영교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Wonderful TOUR 2026 Yearly Schedule

05/05~05/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05/19~05/31	(연휴) 서유럽 7개국 12박 13일	\$3599+항공
05/21~06/03	(연휴)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3699+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5/26~06/05	시그나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06/05~06/1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06/08~06/18	북유럽 4개국 마감 10박 11일	\$49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09~06/19	시그나처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9	시그나처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990+항공
06/21~06/30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 9박 10일	\$2990+항공
06/24~07/05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7/01~07/06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7/03~07/06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0	아일랜드&스코틀랜드&노르웨이 크루즈 \$3650+항공	
08/04~08/17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7~08/17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3~08/20	프리미엄 알래스카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1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8/28~09/04	알래스카 크루즈 2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10~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3190+항공
09/28~10/11	독일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10/08~10/17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380(인사이드), \$1680(오션 마감)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3~10/23	시그나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8박 9일	\$22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7~11/06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9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3490+항공(인사이드), \$3990+항공(오션부)
11/10~11/23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사내선) \$3980+항공	
11/13~11/23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제주포함)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2490+항공

제주 롯데 리조트와 남해안 오션뷰의 최고급 5성 호텔 숙박, 각 지방의 전통 요리를 맛보며 주요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모두 섭렵하는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 다녀오신분이 다시 권하는 탑여행사의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는 타사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2차 6월 21일~6월 30일 (영어) **여행지** 인천/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3차 9월 15일~9월 25일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산방산 유람선

4차 10월 13일~10월 23일 **최고급 호텔 숙박, 바닷가 호텔**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감/거제 소노감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프리미엄 다이닝

5차 10월 20일~10월 30일

노르웨이안 일본 크루즈 11박12일
10/7(요코하마 출발)~10/18(인천 귀환)
\$2609(인사이드) \$3069(오션뷰) \$4289(발코니)

TOGETHER IN KOREA

한국의 매력을 한번에! 한국의 전통, 자연 역사를 담은 감동의 일주 코스.

한국어 투어 (2인 이상 출발) 서울 출발-전주-순천-여수-진주-통영-거제 부산-제주-부산-경주(유네스코)-포항-속초

서남권 3박4일 \$849 **일출발** 제주 2박3일 \$549(부영호텔) **수출발**
서남권+제주 5박6일 \$1349 **일출발** 전국 9박10일 \$2299 **일출발**
동해안 4박5일 \$1099 **금출발** 내륙 6박7일 \$1599 **일출발**
제주+동해안 6박7일 \$1599 **수출발**

영어 투어 (1인 이상 출발) 서울-공주-전주-광주-보성(녹차밭)-순천-부산 경주(유네스코)-대구-안동(하회마을)-평창-양양

한국의 뿌리와 풍경을 따라 멋과 맛,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전통, 역사, 자연여행.

내륙 6박7일 \$1970 **토출발** 동해안 3박4일 \$1200 **회출발**
서해안 3박4일 \$1200 **토출발** 전국 15박16일 \$4500 **매일출발**

TMCI 고국 건강검진

경희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61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50 할인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강남) 남 \$600/여 \$650 현대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병원

탑이 드리는 선물 고객께 드리는 2가지 특별한 혜택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USIM / eSIM 무료 증정! (30 Days)

- 한국여행-항공권-고국 건강검진 구매시 데이터11GB+무제한 통화 USIM 또는 데이터10GB eSIM (에어프리미아 구매 고객께도 드립니다)
- 유럽 패키지(윈더풀 투어) 구매시 데이터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4월말까지 구매자에 한함. Cell phone이 unlock되신분에 한합니다.

단체 문의 환영

2026 성급 여호수아

+아미쉬마켓 당일

6/4(확정), 6/25, 7/16, 8/6, 8/27, 9/17 \$199

6월10일~7월25일 까지 월드컵 특수기간으로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관광이 가능합니다.

동부투어 미동부&캐나다 5박 6일 \$1350 출발 확정일: 5/11, 5/25, 6/8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출발 확정일: 5/4, 5/25, 6/22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1박 2일 \$399 (원하는 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발 확정일: 5/7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투어

서부 완전일주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5대 캐년,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코스타리카 연휴 2명 이상 출발가능 5박 6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마운틴 러쉬모어 크레이지호스 3박 4일 \$1040+항공 (5/22, 7/3, 9/4)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인생 버킷리스트 크루즈

캐나다&뉴잉글랜드 9박 10일 | 10/8~10/17 **마감** \$1380(인사이드), \$1680(오션부)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 10/28~11/9 \$3490(항공, 인사이드), \$3990(항공, 오션부)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격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평택을·부산북갑·울산...범여·범야 모두 “연대 없다”

(5파전)

(3파전)

(5파전)

재보선 14곳 확정... 변수 된 단일화
조승래 “단일화 검토하지 않는다”
조국 “지금 단일화 얘기 성급하다”
박민식 “한동훈과 가능성 1도 없다”



이 대통령, 군소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의원 21명과 박수를 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29일 14곳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이원택(전북 군산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과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사퇴해 기존 5곳(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갑)에 9곳이 추가됐다.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격돌하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는 다자구도 속에 각 진영 내부의 후보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 27일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 평택을 후보로 택하자마자 김 전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신경전을 시작했다. 29일 조 대표는 “지금 단일화 얘기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고, 김 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뛰어 반드시 이기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프레스이안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평택을 주민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용남(민주당) 21.4%, 유의동(국민의힘) 21.2%, 조국(조국혁신당) 23.4%, 김재연(진보당) 9.4%, 황교안(자유와혁신) 12%였다. 김용남·유의동·조국 후보가 3파전 양상이다. 경기 도권 민주당 의원은 “모두 승산이 있다면 누가 물러나겠냐”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28일 SBS 라디오에 나와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평택을 완주 방침은 울산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를 평택을 후보로 낸 진보당은 민주당이 평택을에 무공천하면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상욱 의원에 힘을 모으겠다는 전략이었지만, 평택을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모두 후보를 내며 물거품이 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3자 조사 결과는 김상욱(민주당) 42.6%, 김두겸(국민의힘) 32.5%, 김종훈(진보당) 16.9%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당과 단일화 없이 승리하긴 어려운데, 진보당이 후보

를 물릴 유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갑에 내밀 카드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택하자 박민식(국민의힘)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녁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같은 방송에서 “장동혁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 그쪽을 보고 많이 말하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부산 북갑 주민을 상대로 한 가상 3자대결 조사 결과는 하정우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과 무소속 의원 21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비교섭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단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나한 기자

연공서열 파괴 공직 혁신... 정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AI·통상 등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실력 쌓게 한 분야 장기근무 보장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의 ‘투 트랙 인사 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양성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

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각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일반 공무원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국제 통상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같은 직위들이 전문가 공무원 그룹

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1~2년 주기로 부서를 옮기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가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된다. ‘5급 승진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역량 검증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1%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린다.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두 번째 조치다.

오현석 기자

“쿠광 총수는 김범석 의장”

공정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쿠광, 강력 반발...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광의 동일인(총수)을 쿠광 법인에서 김범석 쿠광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변경 사유다. 쿠광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적용의 기준이 된다. 쿠광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

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동일인 변경의 주된 이유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 수백 차례 주재하고, 배송 자회사인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한 사실 등이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 활동”으로 판단했다. 직급과 보수도 판단 근거가 됐다. 김 부사장은 2024년 급여와 양도제

한조건부주식(RSU) 등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았다. 2021~2024년 누적 보수는 약 140억원에 이른다.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의장은 2023년까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2024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생긴 후 이를 적용받아 법인 동일인이 유지됐다.

공정위 판단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광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거치며 여론에 떠밀려 판단이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최정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상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일인이 된 김 의장은 매년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장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의 계열사들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안효성 기자, 임성영 기자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들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십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들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50 Ellicott Center Dr. #101, Ellicott City, MD 21043



혈관 속 핏덩어리, 혈전 지금부터 강력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건강한 혈관*



원활한
혈액순환*

5000 FU로 혈전 용해 더욱 강화*
우메켄 NEW 나토키나제



후코이단 함유로
시너지 효과



2배 더 강해진
5000FU 함유



2500 FU에서 **5000FU로 2배 업그레이드!**

혈전 관리가 혈관 건강의 시작입니다.

혈관 속 핏덩어리인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전 통증도 없이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발효식품 나토에서 추출한 나토키나제는 뭉쳐있는 혈관 속 혈전을 녹여 보다 원활한 혈액 흐름을 도울수 있는 효소입니다.*

나토키나제의 놀라운 혈전 용해력*



식염수를 투여한 혈액



나토키나제를 투여한 혈액



고지혈증 환자의 모세혈관



나토키나제 섭취후 모세혈관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형진

Doctor is a paid spokesperson

응급의학 전문가가 주목하는 혈관 케어*

우메켄 나토키나제



NEW

Made in JAPAN

OTC 메디케어 카드로 우메켄 제품을 구매하세요!

클레버 케어 • 아스티바 •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에트나 • 센트럴 헬스 플랜 • 휴마나 • LA 케어 헬스 • 몰리나

888-941-3311 umeken.com

오메가 3 증정!



60포 박스 구매시
캐나다산
오메가 3 증정!
4월 30일까지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윤석열 징역 5년→7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선 유죄

(계엄 당일 국무회의 늦장 통보)

재판부 “계엄 이후 사회혼란 더가중”
외신에 허위공보 혐의도 유죄 인정
변호인 “윤, 선고 뒤 실망말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 1심 일부 무죄 부분과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선고를 듣는 동안 대부분 무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다. 일어난 채 주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할 때까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자유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있다.

[법원 영상 캡처]

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혼란을 더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 2명에

대한 늦장 소집통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당시 외신 기자단에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도 유죄로 바꿨다. 해외홍보비서관이 공보 내용의 허위를 판단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는 원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서를 서랍 안에만 보관하다 폐기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해 1월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뒤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와 무력충돌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마친 뒤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보름·최서민 기자

“누가 제조일자 외우냐” 액상전담 단속, 욕설 쏟아졌다

4월 24일 이전 제조품은 단속 제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흡연 부스 외부에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안내문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흡연 중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울 중구청 소속 단속원들을 보고 부스 내부로 몸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자담배를 피우는 일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

이날부터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의 대상이 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원들이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당사자들은 “이건 액상형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일부는 단속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자마자 눈앞에서 찢으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청 등과 함께 단속 현장을 수차례 동행한 결과 전자담배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기존에는 천연 니코

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만 단속 대상이었던 탓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단속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 일자에 따른 단속도 문제였다. 반발하는 흡연자들에게 단속원들이 “제조 일자가 24일 이전이면 단속 대상이 아닌데 혹시 제조 일자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사실을 아는 흡연자들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기기나 액상을 담은 용기에 제조 일자가 적혀있지 않다.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제조 일자를 외

우고 다니기라도 하라는 얘기냐”거나 “박스를 가지고 다녀야 하느냐”며 더 반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복지부가 지자체들에 “6월 23일 이후로 단속을 유예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법 개정안의 부칙에 “법 시행일(24일) 이후 반출·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법에 따

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 혹은 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할 수가 없다”면서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 혹은 수입한 전자담배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아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단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은 “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오히려 혼선을 주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자담배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액상 박스 제조 일자로 입증이 가능하면 (단속 기준일 이전에 생산된) 액상 박스만 보관해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꼼수’들도 게시됐다.

김창용 기자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사진)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

령한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혐의는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

의, 김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톡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1. 찬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5, 화4.5, 차고2, 콘택, 포플라트리 초동, 최고 학교, 장관리, 그린 세 지보 (2018) 및 HVAC 시스템, 2017년, 김바나 스키시계기교체, 3차 및 4차 엘리베이터 (2026) 및 비인식, 천장 팬, 주방 환풍기 교체, 수동 커튼 업데이트 (명장고, 전자레인지, 쿡탑, 더블 오븐 / 2018 - 2026) 바닥재 업그레이드 (침실 및 지하 카펫, 지하 침실 LVT 바닥)

2. 현존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클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4.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5.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670,000
2. 매나사스 2025 새집 방4, 화3.5, 2400sqft, 차고2 \$670,000
3.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750,000

6.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000여 스퀘드,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포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7. 알디 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채마루, 곳칸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8.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
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접 교통요지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래커 테러·고양이 사체까지... 보복 대행, 이 정도일 줄이야

텔레그램 채널 통해 의뢰인 모집
배민 협력업체 취업해 주소 훔쳐
보복 대상자 아닌 이웃·지인 테러도

‘사적 보복 대행’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일당이 피해자 현관 앞에 고양이 사체를 두는 등 엽기적인 테러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태백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은 ‘테러 대행’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4명에게 보복 테러를 가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엽기적이다. 지난해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에선 현관문 주변에 인분과 함께 고양이 사체를 놓아뒀다. 같은 달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현관문에는 래커칠과 함께 된장을 뿌리는 등의 행각도 벌였다. 이들

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적 보복 의뢰를 받고 주거지 앞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시흥·파주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경북 안동·강원 태백 등 지방도 있었다.

사적 보복 대행은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B씨와 C씨는 원래 돈을 받고 개인 정보 등을 알아봐 주는 인터넷 흥신소를 운영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사적 보복 대행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보복할 대상자들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했다. 흥신소 일당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캐내 A씨에게 넘기면, A씨가 ‘특공대원’을 보내 보복 테러를 가하는 방식이었다.

보복 대상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체 범행 25건 중 11건은 보복 대상자 집이 아닌 가족(1곳), 지인(7곳), 이웃 주민(3곳) 주소지에서 이뤄졌다. 일당 중 한명인 D씨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협력업체 라이더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사적 보복 대상자의 주소 정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보복 의뢰를 받고 저지른 범행 현장이라며 자랑하듯 텔레그램에 게시해 놓은 사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오물이 쌓여 있고, 문과 주위 벽에 페인트칠이 돼 있다. 작은 사진은 검거된 일당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텔레그램 캡처]

보를 찾는 역할을 담당했다. D씨는 총 23회에 걸쳐 주소를 빼돌려 공범들에게 넘겼다.

하지만 라이더가 배달한 장소로 주소지를 파악하다 보니, 지인이나 이웃 집 주소를 보복 대상자 주소로 오인해

잘못된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20일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테러 대행 채널을 운영한 A씨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채널의 기존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28일 채널명이 변경되고 운영자가 접속한 정황이 확인돼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찬우 기자

매출 30억 주유소선 못 쓰는 지원금이 대통령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정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액 30억원 이상 되는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서 서울·경기 쪽은 조금 쓰기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한테 ‘(찬반)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의견 좀 들어보자’며 손을 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나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걸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다만 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 수단인 지역화폐는 연매출 30억 미만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 한국주유소 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을 넘지 않는 곳은 36%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란 이름이 있다 보니, 30억원 이상 매출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호 기자

방산·에너지의 한화, 롯데 제쳤다 창사이후 첫 재계순위 ‘빅5’ 진입

자산총액 150조원... 롯데는 6위로

한화가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처음 재계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산·에너지 중심의 사업 구조가 지형학적 불안이란 외부 변수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K뷰티·K푸드 기업의 약진도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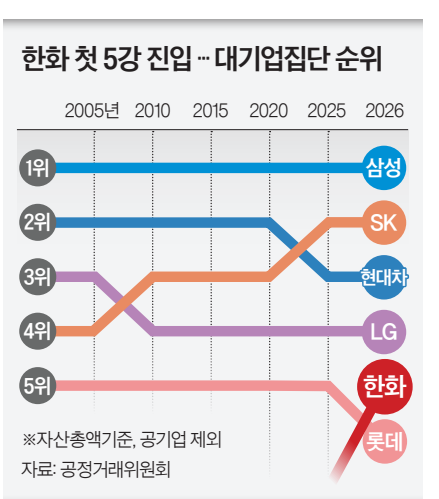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내용이다. 삼성은 공정자산총액 695조 7850억원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SK·현대차·LG도 2~4위로 변동이 없었다. 한화는 처음 재계 순위 ‘톱5’에 들었다. 지난해까지 7위였던 한화는 자산총액이 149조6500억원까지 늘며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처음 5위가 됐다. 롯데와 포스코는 한 해 단번씩 밀려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의 순위가 오른 이유로 방산·에너지 중심의 사업 재편과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방산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체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방산 중

심의 성장 구조가 경기와 국제 정세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변수는 여전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62→53위)과 LIG(69→63위) 등 다른 방산업체 순위도 올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 감시국장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정세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순위엔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뷰티와 K푸드 기업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한국콜마는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 중심인 한국콜마는 제약·바이오 사업 확장,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덩치를 키웠다. 오리온 역시 중국·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15위였던 LS는 14위였던 CJ를 앞지르며 순위를 바꿨다. LS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35조9520억원에서 41조6510억원으로 증가했다. M&A에 따른 순위 변동도 두드러졌다.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과 SBI저축은행을



사들이 교보생명보험은 나란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증권업계의 자산총액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자산총액이 10조3860억원이었던 두우킴은 올해 12조2410억원까지 늘어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토스 역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올해 기준 12조원)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박영우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RQ-170 센티넬(Sentinel)	
RQ-180 화이트 배트 (White Bat)	승무원 3명(지상) 길이 4.5m 높이 1.8m 날개 너비 11.58m
40m 24시간 18km	작전 시간 5~6시간 최고 상승고도 15km

북한 화성-12형 시험발사 그때 트럼프, 김정은 머리 위 있었다

The JoongAng Plus

이철재의 밀담

미국 극비 스텔스 정찰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가자 전쟁,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올해 미국-이스라엘 대이란 전쟁... 냉전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18일(이하 현지시간) 그리스 라리사의 공군기지에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매끈한 자태 덕분에 '라리사의 여인(Lady of Larissa)'라는 별명을 얻었다. 겉으로 봐서도 스텔스기였다. 현지 매체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2가 기체 고장으로 라리사에 긴급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B-2가 아니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위존은 지난 6일 이 스텔스기가 미국의 스텔스 무인 정찰기인 RQ-180이라고 추정했다. RQ-180은 미국이 존재 자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극비 프로젝트다. 2월 28일 이란을 침공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RQ-180이 정찰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1월 3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미군 시설에서 RQ-180의 동생인 RQ-170이 포착됐다. 당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을 뛰었기 때문이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제임스타이클렛 회장은 이 사실을 시인했다.

RQ-170과 RQ-180은 한반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북핵 위기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 발언에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시대라는 말이 유래했다.

지금이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브로맨스로 유명하지만, 당시는 아주 험악했다. 북한은 그해 7월 4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했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포'였다. 7월 28일 화성-14형의 2차 발사 때는 사거리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벌였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이라며 "미국과 동맹을 방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위원장은 9월 21일 직접 성명을 읽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망난 늙은이(Dotard)"라고 비아냥거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에게 말 폭탄을 던지기에 앞서 9월 15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 보조활주로에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에 실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6차 시험 발사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몰랐지만, 북한 평양에서 1만3000km 떨어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봤다. 김 위원장의 머리 위로 RQ-170이 조용히 날아다녔다.

김 위원장이 차에서 내려 그늘막을 친 특별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생생히 생중계됐다. 김 위원장이라고 확인 할 정도의 화질이라고 한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에도 화면이 공유됐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자랑하는 나라다. 평양 근처 시루봉(해발 880m) 정상에 P-14 톨클 레이더를 갖고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600km에 이르며, S-200(SA-5 개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한다. 그러나 북한은 RQ-170이 '최고 준엄' 상공에서 빙방 돌아도 눈치채지 못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 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RQ-170의 위력이다.

"칸다하르의 야수' 한국에 뒀다." 2009년 12월 19일자 중앙일보 1면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주한 미 공군이 최근 몇 달 동안 RQ-170 센티넬

을 한국 내 공군기지에서 시험 운영해 왔다"며 "내년께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곧 잊혔다. 10년이 훌쩍 지난 2020년 1월 28일 위존이 미국 정부에 정보공개(FOIA)를 요청해 얻은 문서로 중앙일보 기사가 맞다고 인정했다.

위존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2009년 6월 2일 RQ-170의 한국 배치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은 그해 5월 25일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앞서 4월 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은하 2호' 우주 발사체를 쏘았다. 미국은 이를 ICBM 개발의 전초 단계로 인식했다. 9월 4일 RQ-170의 군산 배치 명령이 떨어졌다. 10월 2일 "화물이 도착했다"는 이메일이 지휘부로 전달됐다. 당시 군산의 RQ-170은 두 대였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이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때, 미 정부가 발사 직전 액체 연료 주입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RQ-170을 설계할 때 고려했던 임무다.

2022년 11월 2일 제54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SCM)에 참석하려고 미국을 찾은 국방부 대표단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했다. 미 전쟁부 산하의 NGA는 중앙정보국(CIA), 국방방첩보안국(DC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과 함께 미국의 5대 정보기관으로 꼽

힌다. 정찰위성·무인기·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정보를 생산하는 게 NGA의 임무다.

NGA는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북한 미사일 도발의 발사 원점을 한눈에 또렷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전직 당국자는 "입이 딱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NGA의 이미지 가운데 발사 후 하늘로 날아가는 미사일도 있었다. 발사 현장 상공에서 찍었다는 뜻이다. RQ-170이나 나중에 미국이 개발한 RQ-180의 작전 결과로 보인다.

특정 인물의 소재를 찾는 것도 NGA의 특기다.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의 배후에 NGA가 있었다. 유사시 김 위원장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임무도 NGA가 맡을 것이다.

RQ-180은 RQ-170보다 훨씬 더 크다. RQ-170의 날개 너비가 11.58m인데, RQ-180은 40m다. 단, 이 모든 수치는 추정치다. 작전 시간도 RQ-170이 5~6시간이고, RQ-180은 24시간이다. RQ-180이 RQ-170보다 스텔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라 러시아와 같은 적의 방공망이 엄중할 곳의 정찰을 RQ-180이 맡았을 것이다.

RQ-180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를 쏘아 미사일의 전기회로와 반도체를 모두 태우는 '발사의 원편(LOL)' 작전을 맡은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철재 국방전문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 | |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김치 '담궈' 드신다고요?

요즘엔 직접 김치를 해 먹는 집이 많이 줄어든 듯하다. 주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주로 사 먹거나 부모님께서 김치를 '담궈' 보내 주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도 힘에 부쳐 김치를 직접 '담궈' 먹은 지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치·술·장·젓갈 등을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는 행위를 일컫는 낱말은 '담그다'이다. "매실주를 담그다" "된장을 담그다" 등처럼 쓰인다. 그런데 '담궈'를 활용하는 경우 "매실주를 담궈 두었다" "된장을 담궈" 등과 같이 잘못 쓰는 이가 많다.

'담궈/담궈다'는 '담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그러나 '담구다'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잘못된 표현으로, '담궈다'를 활용해 '담가/담궈다'라고 써야 바르다. '담궈다'를 '담그고, 담그니, 담그면' 등으로 활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다. 문제는 '야'를 붙여 활용할 때다. 용언의 어간 '으'가 '아'나 '어'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을 '으불규칙용언'이라 하는데, '담궈다'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그+야'는 '담가', '담그+았+다'는 '담궈다'가 되는 것이다. 간혹 "1년 전 담은 김치"처럼 표현하는 걸 볼 때도 있다. 그러나 '담은'은 물건을 그릇 등에 넣는다는 의미를 지닌 '담다'를 활용한 것으로, 문맥상 '담다'가 아닌 '담궈다'를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경제 안테나

이란 전쟁에도 증시는 왜 호조일까



손성원
로울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SS이코노믹스 대표

해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60만 배럴을 기록했고, 천연가스 생산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고 시장이 변동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가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급락할 수 있다. 다만 역사는 대부분의 위기는 일시적이고, 미국 기업의 성장세는 장기간 지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 9월 11일 벌어진 '911 테러' 당시를 떠올려보자. 사건 직후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거래 개 첫 주에 S&P 500 지수는 14% 이상 폭락하며 약 1조 4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세로 돌아섰다. 당시버텤던 투자자들은 이후 경기 확장 시기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다.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붕괴 상황의 하나였다. 이런 우려에 S&P 500 지수는 2007년의 고점 대비 약 57% 폭락했다. 그러나 증시는 2009년 3월 저점을 벗어났고 이어진 강세장에서 S&P 500 지수는 300% 이상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대공황에서 새로운 고점 경신 상황으로 회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세계 경제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 주식시장은 급

락했고, 투자자들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불과 약 6개월 만에 팬데믹으로 인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앞의 사례들은 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경계하는지 보여준다. 시장이 공포 상황에 빠지면 매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의 회복은 대체로 호재가 뉴스로 발표 전에 시작되며, 상황이 좋아 보일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반응이 이루어진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 랠리는 역사적으로 익숙한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투자자들은 단기적 위기보다 기업 실적, 경제 회복력, 에너지 안정성, 그리고 종전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물론 유가가 더 오르거나 전쟁이 확대될 경우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은 개별 위기보다 기업과 경제가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 경제는 과거에도 많은 충격을 견뎌냈고, 장기 투자자는 보상을 받았다. 전쟁, 경기침체, 테러,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가 투자자들을 시험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시 상승했다.

이란 전쟁은 분명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이 더 큰 보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 공포 상황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하지만, 시장은 장기적인 기업 수익과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좌우한다.

J네트워크

반도체 총력전



김동호
한국중양일보 논설위원

서 시제품 라인을 가동했고, 내년부터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물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2010년대 초에도 엘피다와 르네사스를 앞세워 재기를 노렸으나 한국과 대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절실함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총 3조 엔 규모의 재정 투입에 나섰고, 참여

기업들의 출자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국 기술만 고집하던 이른바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 순혈주의'를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라피더스가 미국 IBM과 손잡고 기술 개발에 나선 한편, 일본 정부가 대만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한 것이 상징적이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TSMC 구마모토 2공장은 3나노급 공정까지 계획하고 있다. 자존심을 접어두고 개방과 협력을 택한 이번 도전의 성패는 첨단 공정 안착 여부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일본의 총력전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향해, 추격을 허용치 않는 수준의 초격차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산업의 주도권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반도체 없이도 버틸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일본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자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이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일으키면서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은 물론 군사 기술에서도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일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과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에는 소프트뱅크·소니·토요타 등 업종을 초월한 32개 대표 기업이 참여해 AI 반도체 설계 및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라피더스는 지난해 봄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중국 희토류 등 모든 '초크포인트' 평소에 대비해야

(핵심적 병목 지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힘들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해 온 이번 전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중동과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우리 처지에서는 전쟁의 교훈을 정리하고,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 산업·통상정책을 주로 다루는 필자가 국제정치까지 논하는 것은 다소 넓은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장기적 질서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할 때도 많다. 전쟁 당사국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나 이란의 협상 전술로 인해 본질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트럼프 고립주의 회귀 예측 빛나

이번 전쟁은 트럼프의 미국이 신중함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국가로 변모했음을 재확인시켰다. 직감을 과신하고 즉흥적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있지만, 트럼프가 취임 이후 손댄 이슈들은 역대 정부가 회피하거나 적당히 봉합한 난제들이 대부분이다.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의 정치적 부담이 큰데도 밀어붙인 이란과의 전쟁은 그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통상·투자 협상은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재편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미국이 가진 문제의식과 충돌하는 접근을 택할 때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면모주의 의식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빛나갔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여전히 패권적 국제질서를 추구하며, 다만 그 방식이 이전과 다를 뿐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엔 느꼈을 것이다. 우리로서도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전략적 우방인 이란을 음양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나라는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며 사실상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권유했

고, 호르무즈 역봉쇄로 자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아직은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들 스스로 이란이 핵보유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의지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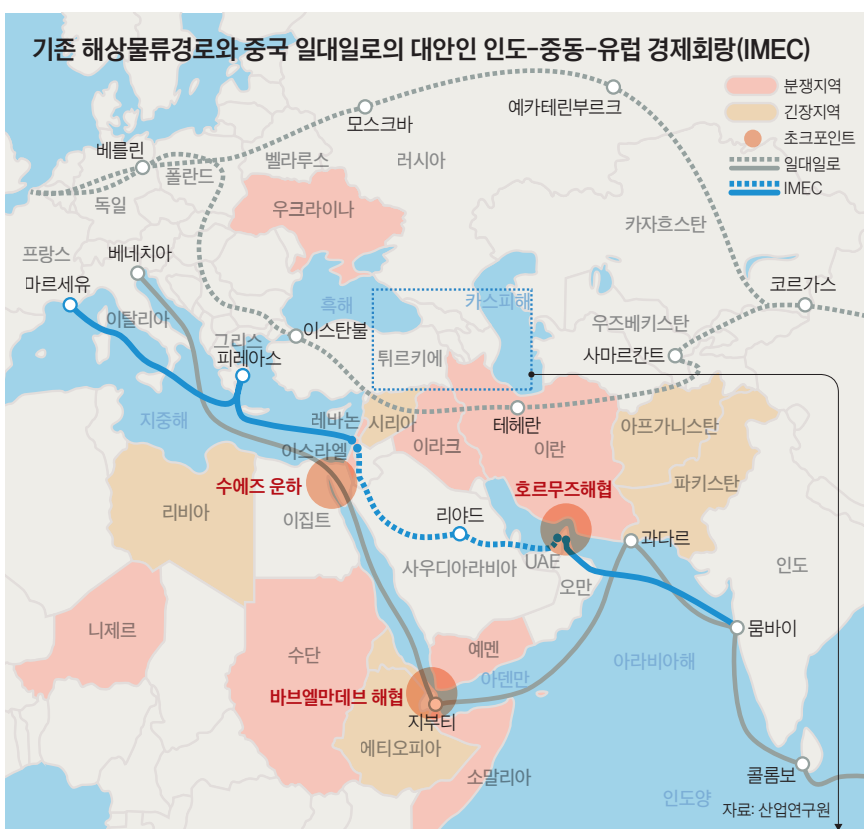
중동정세의 변화와 전쟁의 배경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추구한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역량 약화가 핵심이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어 중동에서의 안보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해왔다. 2020년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간의 아브라함 협정 중재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2023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은 그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하마스·헤zbollah·후티 반군 등 중동 내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이란의 방해가 지속하는 한, 이 구상의 현실화는 어렵다.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접근을 막으려는 이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코카서스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펼쳐졌다. 2025년 8월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37년 분쟁을 중재해 양국 정상의 평화협정 가서명을 이끌었고, 양국을 통과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트럼프 국제평화·변영 노선(TRIPP)'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노선은 러시아와 중국 인프라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 부족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 노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 능력까지 갖추기 전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었다고 봐야 한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이 주변 이슬람국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폭격에도 주변국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쟁 이후의 변화와 기회 요인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강력한 무기임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이란의



군사적·경제적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수십 일에 걸친 폭격에도 반격의 강도는 미미했고, 최후의 카드로만 여겨져 온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명운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의 실질 전력이 생각보다 취약함을 방증한다. 전쟁 이전에도 이란 경제는 재정 고갈과 에너지 위기, 5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파란 직전이었다. 이번 전쟁으로 입은 피해는 최소 3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국제기구가 추산한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이 2024년 약 4000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전쟁 이후 중동의 미래는 GCC 국가들의 질서회복 노력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을 제외한 여내 국가들은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홍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이

는 BTC 송유관을 이라크와도 연결하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회로 역시 무장세력에 위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란의 약화로 인해 그 힘은 줄어들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봉쇄 이후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냉정한 시각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동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방위산업 등에서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다. 중국 기업들이 독식해 온 일대일로 사업과 달리, IMEC이나 TRIPP 같은 서방 주도 연결 노선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 중동의 안정이 인접한 중앙아시아 자원 부족들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점도 해외전략수립에 반영해야 할 요소다.

경제안보 전략의 강화 필요성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우리는 원유

와 나프타 수입에 큰 차질을 겪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이 비전투국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라고 논평했다. 근본 원인은 우리 산업 구조가 원유와 나프타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데 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NCC(나프타분해시설)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한국의 나프타 의존도는 약 83%에 달한다. 미국이 에탄 크래커 중심으로 나프타 의존도가 4%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며, 중국의 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나프타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이 제한되며 중동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태였고, 이번 전쟁으로 취약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긴급 수급 조정에 나서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그러나 사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평소에 우리 산업의 취약 지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량의 약 20%, 우리 물동량의 40%가 통과하는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 충격은 훨씬 클 것이다.

한편, 핵심적 병목 지점을 의미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는 지리적 해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희토류처럼 필요한 순간에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해당된다. 역으로 우리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초크포인트를 발굴하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우리 영토 내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유지, 강화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전략적 능동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세 가지 방향의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산업·통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급망 구조 재구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둘째,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GCC 국가들은 물론 중앙아시아·코카서스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적 시각을 확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우리가 가진 초크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야 한다. 전쟁 이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응을 서둘러 수록 우리가 설 자리도 넓어질 것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엇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 설

삼성전자·삼바 ‘성과급 파업’, 시장의 역습 부른다

삼성전자가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성과급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삼바 노동조합은 임금 14% 인상과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이미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성과급 파업 위협은 개별 기업의 불안정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와 바이오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며 한국 기업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는 산업 특성상 파업의 피해가 즉각적이다. 살아 있는 세포를 다루는 배양 공정은 단 한 번의 중단으로도 수개월의 성과물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일부 공정에 대해 ‘변질 방지’를 이유로 필수유지업무를 인정했다. 노조는 이 부분을 제외한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전체 공정이 연결돼 있어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기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삼바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경쟁사들은 ‘무분규·안정 생산’을 내세워 고객을

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45조원으로 추산되는 노조의 성과급 요구액이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훌쩍 넘는다. 미래 기술 확보에 쓰여야 할 재원이 직원들의 현금 잔치로 빠져나가면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한 때 세계 반도체 1위였던 인텔이 보상 파티 속에 투자타 이밍을 놓치고 존립의 위기에 내몰린 사례는 반면교사다. 한국 역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삼성전자가 일부 가전 생산 라인을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비상 국면에서 삼성전자·삼바 노조위원장 은 파업을 주도한 뒤 해의 휴가를 떠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이 쇠퇴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S&P500 구성 기업의 30%는 10년 단위로 교체될 정도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생존 환경은 더욱 거칠어졌다.

성과급 요구가 파업으로 선을 넘는 순간, 고객 이탈과 자동화 가속 등 시장의 역습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대가는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치르게 된다.

사라져 가는 수학여행, 교사 책임만 따질 일 아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빠르게 위축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교원단체들은 대통령 인식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발언의 본뜻도 그게 아니었지만,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단순히 교사들의 책임 회피로 몰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2022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이었다.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학생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은 통계 수치로도 드러난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중 지난해 당일치기 현장 체험학습을 한 학교는 51%에 그쳤다. 2023년(99%)에 비하면 2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올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계획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전체의 17%로 지난해(42%)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장 안전 인력이나 비용 지원 정도로는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서두르길 바란다.

국정조사가 놓친 ‘노무현의 1분’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조용한 비밀 공간에서의 술자리, 진술을 회유하는 음습한 녹음, 녹취록 단어를 바꾼 보이지 않는 손...

마치 추리소설 같은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은 독자들과 함께 퍼즐을 푸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처럼 전개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소설처럼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 지난 28일의 종합 청문회로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조사에 선 용의자를 꼽아 못 하게 할 결정적 단서도,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반전의 논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범인 아니냐’는 고함이 커질수록 용의자의 탈출구는 넓어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탐정’들은 애써 쓴 웃음을 지었다. 범인을 색출했노라 외치면서도 찻잔을 느끼는 듯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처음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날 자정이 다 된 시간,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면서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추궁을 당하자 민주당을 향해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프레임에 균열이 생겼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을 들었다 놔다 했다. ‘언어 술파티’ 추궁에 “술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 과거 접견 기록에서 검사들이 “악마”라고 표현한 것도 조작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동료가 구속되고 가족의 불륜까지 공개되는 수사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그분”이라 표현하며 “본 적도 없다. 내 평생 마음속 영웅인데 누가 돼 죄송스럽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목표로 수사한 것 같다고는 했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조작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제는 아니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해 한달음에 달리고 싶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스텝이 꼬였다. 사건 관

련자의 진술이 오염되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나는 부적절한 대화마저 ‘스모킹 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박 검사의 입장은 들어보려 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기회를 놓쳤다. 민주당의 오만한 자세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게 뻔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를 당연시하는 모습에서 반복되고 있다. 38년 전 ‘청문회 스타’였던 선배 정치인이 실제적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과 현격히 대비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의 청문위원으로 이름을 드높인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는 1분 길이 영상으로 SNS에서 접할 수 있다. 1988년 11월 5공 비리 청문회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정경유착의 잘못을 시인받는 질의의 시작 부분이다. 진실 찾기는 적개심과 예단이 아닌 설득과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웅변하는 것 같다. “크게 성공하신 기업인의 능력과 정

미완의 추리소설 같은 국정조사 성급히 결론지으려다 스텝 꼬여 자백 이끄는 설득과 논리 사라져

열이나 경륜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중략)... 증인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국민의 사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지금까지 하신 처신이 당연시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의 증언이 영웅시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증인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이니까 증인의 생각과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과거와 동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국정조사는 국민의 이익과 이해에 맞춰져야 한다. 성급하고 정략적인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은 더 난해해졌다. 향후 재판이나 특검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또 다른 회유와 조작 의혹을 양산할지 걱정이 앞선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처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HK WORLD, NHK WORLD ASIA, NHK WORLD SPAIN, NHK WORLD PORTUGAL, NHK WORLD ITALY, NHK WORLD GERMANY, NHK WORLD FRANCE, NHK WORLD CHINA, NHK WORLD INDIA, NHK WORLD AUSTRALIA, NHK WORLD SOUTH AMERICA, NHK WORLD MEXICO, NHK WORLD BRAZIL, NHK WORLD ARGENTINA, NHK WORLD CHILE,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GUATEMALA, NHK WORLD HONDURAS, NHK WORLD NICARAGUA, NHK WORLD COSTA RICA, NHK WORLD PANAM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NHK WORLD JAMAICA, NHK WORLD TRINIDAD AND TOBAGO, NHK WORLD SURINAM, NHK WORLD GUYANA, NHK WORLD PARAGUAY, NHK WORLD URUGUAY, NHK WORLD BOLIVIA, NHK WORLD ECUADOR, NHK WORLD PERU, NHK WORLD COLOMBIA, NHK WORLD VENEZUELA, NHK WORLD CUBA, NHK WORLD DOMINICAN REPUBLIC,

바다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봄맞이 특별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온열 지압침대
백들이 온열지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팜'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삼강 평상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 효과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드 흡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자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호르몬 Safety Zone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30TH - MAY 7TH, 2026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토종순대
 1.5 LB/PKG **LIMIT 2**

\$ 7.99

ORION

Sweet & Spicy Swicy 2 Mix

오리온 스와이시 스낵

O! TUBE(SWEET CHILLI) +TURTLE CHIPS (KOREAN STYLE CHICKEN)



\$ 8.99

LIMIT 2
 26.52 OZ (14 PACKS/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30, 2026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가주 산불 보험 개혁 추진

산불 피해 주택 보상 관련
지급 거부·지연 못하도록
패키지 3법 본격 심의 시작
보험료 인상 가능성 우려



산불이 발생하기 전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가주가 주택 화재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가주 상원은 대형 산불 이후 보험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인 SB876과 SB877, SB878 심의에 들어갔다. 세 건의 법안은 가주의 고질적인 산불 위기와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트로 발의된 산불 보험-복구 패키지 법안이다. 세 법안은 각각 보상과 예방, 시장 안정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입법 패키지의 핵심 법안은 재난복구 개혁법인 SB-876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담당 손해사정인을 교체할 경우 5일 안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된 경우 보험사는 30일 안에 실제 현금 가치와 확정된 재건축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생활비 지원 확대와 보험 갱신 보장, 2년마다 재난 대응 계획 제출, 벌금 강화를 명시했다.

SB-877은 산불 예방과 주택 강화법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주택 소유자가 내화 장치를 할 경우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보험료 할인에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화성 지붕 설치나 주변 잡목 제거 등을 하면 보험사가 위험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SB-878은 보험시장 접근성 보장 법안

으로 특정 지역 전체를 고위험군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때는 최신 기상 데이터와 주택의 방화 조치 상태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스티브 파달라 상원 보험위원장은 법안 심의와 관련해 “수십 년간 유지된 보험 제도가 현재의 재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달라 위원장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산불 발생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보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이 청구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설계해왔다고 비판하

며 이를 체계적 실패로 규정했다.

지난해 1월 산불로 LA 일대에서는 1만2000여채의 주택이 불탔으며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만 83억 달러 규모의 주택이 소실됐다.

현재까지 보험사는 224억 달러를 지급했고 정부 지원과 기부금으로 6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 가주 보험법에 따르면 전체 4만2121건의 보험 청구 가운데 약 94%가 지급된 상태다.

주정부는 보험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라라 국장은 스테이트팜과 협상을 통해 일부 조건을 조정했고 보험사의 가주 철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지급 거부와 지연, 소통 문제 등과 관련된 민원은 2000건 이상 처리했다.

라라 국장은 “가주에서 산불은 더 이상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연중 반복되는 현실이 됐다”며 “화재는 더 빠르고 강력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건 비용 산정 방식과 건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택 소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주건설산업 협회와 보험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손해 보험협회 테니 리더 부회장은 “의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주개인보험연맹 측은 법안이 통과돼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보험료가 평균 15%~20%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연간 200~300달러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의 경우 주택 보험이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수업료: \$350 (교재비: \$100)
2026년 4월 1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수리 전 가격: \$650,000
공사비(후불): \$45,000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1
\$1,500,000
퍼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채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버지니아
2
\$1,400,000
퍼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4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DC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오피스 수요, 팬데믹 이후 최대 반등

1분기 투여 건수 18% 증가
LA도 2년여 만에 최고 기록
AI·금융·문화산업 호황 영향

이란 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오피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 VTS에 따르면 신규 대면 및 가상 오피스 투여 건수를 나타내는 '오피스 수요 지수(Office Demand Index)'는 지난 1분기 79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VTS의 니 로미토 최고경영자(CEO)는 "불안정한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수요는 올해 매우 강한 출발을 보였다"며 "특히 이번 분

기에는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AI) 호황뿐 아니라 금융 및 법률 업종까지 수요 확대를 이끈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세는 최근 하락세였던 고용 지표와는 다소 엇갈린 결과여서 주목된다.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지난 1월 사무실 기반 일자리는 2022년 대비 여전히 2% 감소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는 오피스 수요 축소로 이어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실률 역시 소폭 개선됐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올해 1분기 22.2%로 전 분기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으며, 2025년 2분기 정점 대비로는 0.30%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이 전국 오피스 수요 증가를 주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AI 관련 기술 고용 증가가, 뉴욕은 다양한 산업 기반이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LA 역시 예술·문화 산업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투자 건수 증가를 기록했다. LA의 오피스 수요 지수는 1분기 72포인트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반면 보스턴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부진한 시장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축소 여파로 생명과학 분야 오피스 수요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이외에도 시애틀, 워싱턴 D.C., 시카고 등은 고용 성장 둔화로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VTS의 라이언 마시엘로 최고전략 책임자(CSO)는 "AI 붐이 오피스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 산업 기반이 부족하거나 성장 동력이 제한적인 지역은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윤식 기자

2월 주택가격 0.7% 상승

지난 2월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흐름이 9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 28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2월 국내 '코탈리티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전국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택의 실질 가치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S&P 글로벌의 니컬러스 고백 채권·상품 부문 수석은 "6%에 근접한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구매력과 거래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명목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 하락세가 샌블트(남부)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주요 대도시 중 절반 이상이 전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 48년 만에 최저

전쟁 여파로 물가 불안
전월 대비 3.5p 하락해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4월 국내 소비자심리의 경제 심리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4일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심리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4월 49.8로 전월(53.3) 대비 3.5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주 전 발표된 잠정치(47.6) 대비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존 최저치는 2022년 6월 50.0이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3월 55.8에서 4월 52.5로 떨어졌다.

특히 물가 우려가 크게 확대됐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8%에서 4월 4.7%로 상승, 행정부의



물가 불안 속에 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로이터]

관세 부과 발표가 있었던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202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정치 성향, 소득, 연령,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소비자 심리 하락세가 나타났다"며 장·단기 사업 여건 전망도 관세 충격이 있었던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

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슈 디렉터는 다만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고 휘발유 가격이 일부 하락하면서 이달 초 소비자심리가 다소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 전쟁이 주로 휘발유 가격 등 물가 충격을 통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 공급 제약 해소나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 군사·외교 진전만으로는 심리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쿼츠 카운터톱 전면 금지 검토

가공 과정에서 실리카 먼지
노동자 규제증 발병 급증

가구가 인조석 카운터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앤지니어드 스톤으로 불리는 인조석은 천연 쿼츠 가루를 수지와 결합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실리카 함유량이 높아진다.

운터톱 설치를 위해 자르거나 연마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폐가 굳는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가구에서 젊은 석재 가공 노동자 사이에서 규폐증 발병이 급증하면서 규제 대상이 됐다.

가구에서는 올해부터 SB20 법안이 시행되면서 인조석 가공 시 먼지가 날리는 건식 절단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돌을 자르거나 갈 때 반드시 물을 사용하는 습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구는 내년부터는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가공소는 인조석 슬랩 구매와 가공이 금지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카운터톱 정부와 서부직업·환경의학회 등 보건 단체들이 규폐증 발병 증가 원인이 규정의 실패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실패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게 됐다.

가구 직업안전보건 표준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 LA에서 공청회를 열고 호주처럼 인조석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는 2024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조석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가구에서 쿼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건강 위험을 줄이는 소재로 주방 인테리어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리카 먼지는 가공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카운터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건강 문제가 없다.

유니버시티파크에 저소득 주택

6층 건물·155세대 규모
SB4 적용 절차 간소화

LA 유니버시티파크 지역 교회 부지에

155세대 규모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어바나이즈LA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시티파크(2208 S. 유니온 애비뉴)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교회(United University Church) 소유 부지에 6층 건물(조감도)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는 22번가와 23번가 사이 유니온 애비뉴 동쪽에 있으며 10번 프리웨이

이 남쪽 인근이다.

개발은 LH 하우징이 맡았으며 기존 단층 건물을 철거한 뒤 1베드룸 아파트 155세대를 조성하고 주차 공간 24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1층에는 교회 공간이 포함되며 나머지 구간에는 주거 및 기타 생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설계는 JPark 아키텍츠가 담당했

고 건물 외관은 벽돌 마감을 적용해 기존 상업용 건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계획됐다.

한편 종교기관 소유 부지에 추진되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은 가주법 SB4 적용 대상에 해당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송영채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ALE** \$438K NEW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SALE** \$700K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SALE** \$1.39M

6501 Divine St, McLean, VA **SOLD** \$2.79M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SOLD** \$1.7M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25M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SOLD** \$1.25M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피델츠) 좋고, 교통, 생활 편리 NEW

에너제틱 좋은 위치에 있는 번듯한 명품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 으로 매매.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5, 화 3.5, 현대 타국 외과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셀러가 흡족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완료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북수 오피스에서 경쟁 불고 특템,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완료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 음, 4/3 세팅먼트 완료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택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NEW	6/1 입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통/생활/학교/안전한 인기있는 타운하우스 단지, 방 3, 화 3.5, Nice Owner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5/1 입주가능	\$4,900 명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화 2.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NEW	6/1 입주예정 PENDING	\$3,400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793 Brenbridge St, Vienna, VA NEW	5/1 입주예정 PENDING	\$4,800 주택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48 McLean Mews Ct, McLean, VA 22101 NEW	4/21 입주예정 RENTED	주택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RENTED	주택 3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일 년에 80~100여 주택 렌트 구매 중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팅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시장 방향성 아닌 펀드 매니저 실력에 투자

미국서 헤지펀드 활용하기

요즘의 글로벌 금융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의 향방, 연준(Fed)의 금리 정책,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의 재편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가의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헤지펀드(Hedge Fund)'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헤지펀드의 본질과 투자 전략, 그리고 미국 내 일반 투자자가 이에 접근하는 법을 검토해 본다.



분산은 결정 자체보다 충분한 근거와 행동 시기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다.

▶펀드 본질

이름 그대로 '올타리를 치다(Hedge)'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즉, 시장이 하락할 때 내 자산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특징은 '알파(Alpha)' 창출에 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가 S&P 500 지수(Beta)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면, 헤지펀드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주식을 사는 것(Long)은 물론,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공매도(Shor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을 동원해 수익 기회를 극대화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 데이터 과학이 결합된 계량 투자 전략(Quantitative Investment Strategies, QIS)이 주를 이룬다.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수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미세한 가격 왜곡을 포착하는 이 방식은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정교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동력

전문가들은 현재 헤지펀드 시장이 이른바 '세속적 순풍(Secular Tailwinds)'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산 간 상관관계 증가, 접근성 확대 등 유리 리퀴드 얼터너티브, 복제 ETF 등으로 투자 자산의 일부 배치, 변동성 완충 장치 역할로

첫째, 금리 환경의 변화다. 제로 금리 시대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산이 함께 상승했지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5% 안팎을 유지하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는 옥석 가리기에 능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둘째는 자산 간 상관관계의 증가다. 최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가 무너진 지금, 주식-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투자'로서 헤지펀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투자 접근성과 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기관들만 알음알음 하던 전략들이 이제는 리퀴드 얼터너티브(Liquid Alternatives)나 ETF 형태로 출시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민주화'되었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헤지펀드들이 훨씬 정교하게 초과 수익(Alpha)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이 산업 전체의 성장

를 견인하고 있다.

▶국내 일반 투자자 접근 방법

과거 미국에서도 헤지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인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 계좌만 있다면 쉽게 헤지펀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리퀴드 얼터너티브(Liquid Alternatives)' 펀드와 ETF다. 찰스 슈왁(Charles Schwab)이나 피델리티(Fidelity) 같은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 100달러 미만의 소액으로도 매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모 헤지펀드는 분기별로만 자금을 뺄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지만 ETF 형태는 주식처럼 매일 사고팔 수 있다. 비용도 실제 헤지펀드의 '2% 운용 보수 + 20% 성과 보수' 등의 구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헤지펀드 복제 ETF(Hedge Fund Replication ETF)'도 대안이 된다. 이는 유명 헤지펀드들이 SEC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공시(13F) 등을 분석해 유사한 성과를 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리퀴드 얼터너티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Liquid)이 있는 대체 투자(Alternatives)'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나 초고액 자산가들만 누리던 헤지펀드의 정교한 전략을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공모 펀드나 ETF 형태로 규격화한 상품군을 통칭한다.

▶따져봐야 할 리스크

미국 시장에서도 헤지펀드 투자가 항상 승리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명확하다.

첫 번째는 비용이다.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하는 ETF는 일반 S&P 500 인덱스 ETF(보통 0.03~0.09%)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편(대략 0.5~1.0% 이상)이다. 하락장 방어 효과가 이 비용을 상쇄할 만큼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다. 잦은 매매를 하는 전략 특성상 단기 자본이득세(Short-term Capital Gains Tax)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RA나 401(k) 같은 세금 우대 계좌를 활용하

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언급한 리퀴드 얼터너티브가 헤지펀드의 문턱을 낮춘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공모 상품인 리퀴드 얼터너티브는 사모 헤지펀드에 비해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사용에 규제가 많다. 이로 인해 실제 헤지펀드 지수와의 성과 차이(Tracking Error)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대형 운용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성과를 결정짓는다. 전략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투자가 되지 않도록 운용 철학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결국 헤지펀드는 자산 전체를 거는 대상이 아니다. 대신 내 자산의 일부(예: 10~15%)를 할당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시장이 요동칠 때 내 계좌의 하락 폭을 줄여주고 남들이 손실을 볼 때 소폭이라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것이 헤지펀드의 진짜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수 추종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헤지펀드 전략과 리퀴드 얼터너티브 등의 도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자산 관리에 접목해 보는 것도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대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 최이피츠 자산관리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SOLD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39,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센터빌 타운홈

PENDING

\$680,000

방4/화2.55/차고2
End Unit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트 완료

SOLD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교회 예배 출석 25년 만에 증가

팬데믹 당시 45명서 지난해 70명 회복 헌금·봉사도 증가, 낙관적 분위기 형성

미국 교회의 예배 출석 중앙값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4일 종교기자협회 연례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팬데믹 이후 미국의 예배 출석 인원 회복’ 보고서에서 예배 출석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 참여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회 7453곳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는 교회 출석과 헌금, 자원봉사, 인구 구성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과 지도자의 미래 인식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약 절반은 남부 교회이며 나머지는 서부와 중서부, 북동부 지역의 교회다.

보고서는 큰 틀에서 교회에 새로운 흐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목회자들 사이에 다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엘리스 노턴 공동 소장은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데이터가 회복력과 재정비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표 전반에서 회복과 재생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교회의 주간 평균 대면 예배 출석 중앙값은 2000년 137명에서 코로나19 기간 45명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성인 기준 70명으로 회복했다. 이는 2020년 조사에서 기록된 65명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가 아직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뒤집을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연구소의 스캇 섬마 공동 소장은 “그동안 감소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증가한 것 자체가 매우 오랜만의 현상”이라며 “2025년 데이터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교회에게 이번 변화가 감소 흐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단별로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중앙값 200명으로 출석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개신교보다 교구 수가 적은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음주의 교회는 중앙값 75명, 주류 개신교 교회는 50명을 기록했다.

전체 교회의 약 43%는 출석이 5%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46%는 5%대의 감소를 보고했다. 나머지 교회는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감소보다 성장이나 안정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교회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고 소형 교회는 감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출석 증가 결과에 대해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재검증을 거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했다. 퓨리서치센터 등 다른 연구에서도 종교 감소세가 최소한 현재로서는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교회의 절반 이상은 출석 인원 70명 이하의 작은 규모다. 하지만 신자들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은 큰 교회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교인의 약 78%는 출석 인원 25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 나간다. 연구소는 이를 대부분의 교회는 작지만 대부분의 신도는 큰 교회에 다닌다고 표현했다. 대형 교회 교인의



교회의 예배 출석이 25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성 토마스 사도 성공회 교회.

비중이 2020년의 70%에서 78%로 늘어난 것은 교회의 양극화라는 우려를 낳았다.

주간 출석 인원이 45명까지 떨어졌다가 70명으로 증가한 것은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또 중앙값이 70명인 것은 전형적인 교회는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는 팬데믹 초기에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 등으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후 장기화 상황에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생존 모드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예배는 2023년 75%에서 지난해 69%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대면과 온라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예배가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온라인 예배가 팬데믹 이전에는 20%~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리사 미코스키 연구원은 “지금은 단

순한 회복이 아니라 적응과 실험의 단계”라며 “성장하는 교회들은 팬데믹 기간 배운 회복력의 교훈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직자들의 이탈 의향이 감소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섬마 공동 소장은 “교회 상황이 개선되고 자원봉사 참여가 늘어나면 성직자들의 심리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이 교회에 일종의 경고 신호로 작용해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재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헌금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섬마 공동 소장은 “이제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거나 즉시 헌금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중간 수입은 2020년 12만 달러에서 지난해 20만5000달러로 증가했다. 온라인 헌금이 가능한 교회 비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76%로 확대됐다. 보험료와 건물 유지비 등 지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기준 전체 교회 수입의 약 40%가 온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 교회와 비기독교는 흑자일 가능성이 높았고 주류 개신교 교회는 적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연구진은 지난해 나타난 성장세가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가 종교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인 감소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소는 교회가 생존 단계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노턴 공동 소장은 “교회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정체성과 사명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됐다”며 “이런 변화가 데이터에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2030년 대규모 추가 조사로 보다 명확한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교황 “목회자로 전쟁 지지 못 해”

교황 레오14세가 지난 24일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전쟁과 이민, 동성 커플 축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목회자로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 없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을 밝혔다.

그는 “수용 능력이 부족한 국가라도 이민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결코 동물보다 못한 존재처럼 다루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 내 동성 커플 축복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황은 “교회의 일치와 분열이 성적 문제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와 평등, 종교 자유와 같은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합헌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1일 9대 8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교육 현장에 종교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학교는 십계명 포스터를 교실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와 글씨체는 교실 어디에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항소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어떤 학생도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이를 믿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는 정교 분리와 종교 교육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광고·구독 문의
Tel. 703-281-9660
① 위싱턴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Flipping 전문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은 20년 경력의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 주세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을 가장 매력적으로 디자인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실제 사례 광고, 스탠포드 싱글홈

주방 주방 바퀴벌레있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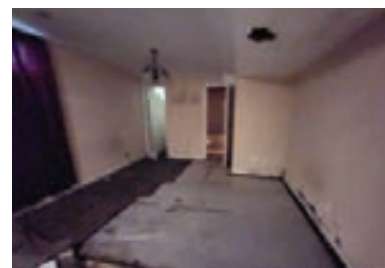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저분한 캐비닛제거후 주방 등 설치, 간단히 분위기를 바꿈.

지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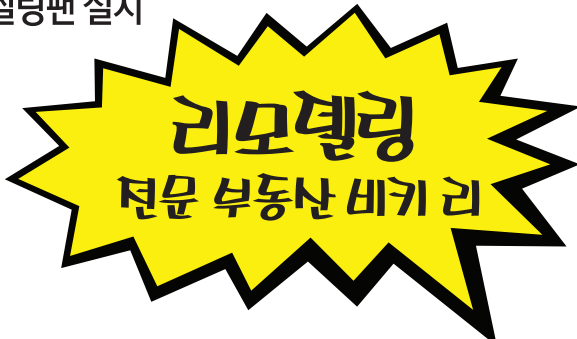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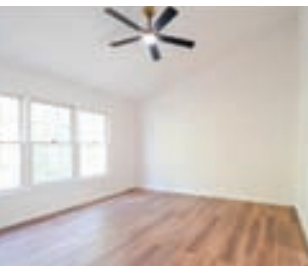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하 물난리난집, 지하 간이바, 밝은 천정등 설치.

안방 카펫에서 마루시공, 씰링팬 설치



목욕탕 넓은 샤워장설치, 그림같은 욕실



바이어: 어떠한 험한집도 사시면 깔끔하게 단장하여 드립니다.

셀러: 아무리 험한집도 이쁘게 수리하여 빨리 팔아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전문업체

임대면허취득, 임대 인스펙션, 납성분검사, 세입자와의 분쟁해결, HOA 위반사항 해결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로스 알라미토스·로스무어의 가치



알렉스 신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

우수 학군·쾌적 주거·접근성 고루 갖춰
단기 상승 제한적이나 장기 안정성 강점

남가주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지역들이 있다. 어바인, 풀러턴, 부에나파크처럼 이미 잘 알려진 도시들이다.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꾸준히 가치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로스 알라미토스(Los Alamitos)와 로스무어(Rossmore)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두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북서쪽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도시와 주

거 커뮤니티다.

규모만 놓고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로스무어 남쪽에는 실비치 시에 있는 은퇴자 커뮤니티인 레저월드가 있고, 동쪽과 북쪽에는 로스 알라미토스, 서쪽에는 롱비치 등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양쪽을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인근의 세리토스, 사이프러스 등과도 연결성이 좋다.

로스무어는 특히 주거 환경에서 강점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이 많고,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한다. 로스 알라미토스 역시 화려한 신축 단지는 많지 않지만, 오래된 주택들이 잘 관리되어 있고 거주 중심의 안정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투자용”보다 “살기 위한 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학군이다. 로스 알라미토스 통합 교육구는 오렌지 카운티

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학군을 보고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학군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가격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상권 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아주 화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 한인 상권이나 대규모 쇼핑몰이 밀집한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으므로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다.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롱비치 등 주요 상업 지역이 차량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굳이 중심 상권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성

격이 분명하다. 단기間に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형 지역이라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구조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급격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부동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가치를 유지하는 지역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로스 알라미토스와 로스무어는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강한 지역이다.

부동산 이야기

유가 상승에 부동산 시장 변화



조진욱
드림부동산 부사장

통근비 부담 증가로 도심 주거 수요 이동
금리·공급 변수 맞물리며 시장 구조 재편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넘어, 가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가주는 자동차 이용 비중이 높고 물류의존도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유가 변화는 주거 형태부터 상업용 부동산, 개발 환경까지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유가 상승은 주거 선택에 점

진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가주는 도시가 넓게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 이때 유류비가 상승하면 통근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작장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

그 결과 도심이나 주요 고용 지역 인근의 주거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외곽 지역과 같이 통근 거리가 긴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유가 상승은 물류 및 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들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 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일부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모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일정 수준의 공실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개발 측면에서도 유가 상승은 영향을 미친다. 건설 자체 운송비와

장비 운영비가 함께 상승하면서 전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개발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공급의 제한은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가 상승은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나 시장의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가격이 급격

히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생활과 업무가 가까운 환경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전 기차 인프라나 친환경 설비를 갖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가 상승은 가주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과 함께 장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유가 흐름을 단순한 외부 변수로 보기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9년 11월 4일 이슬람 혁명이 한창인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난입했다. 직원 5명이 인질로 억류됐다. 열흘 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해외 재산을 동결했다.

미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란 혁명정부는 꺾이지 않았다. 이듬해 4월 미국은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교역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억류된 인질과 동결된 재산, 두 협상 카드가 팽팽히 맞서면서 신경전은 해를 넘겼다. 알제리가 중재에 나섰다. 혁명의 정당성에 경도된 호메

김성재의 마켓나우

전쟁과 증시가 만났을 때

이니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착 상태를 깬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1980년 9월 22일,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이 이란을 침공했다. 대미 관계 악화와 내부 혼란으로 약화된 이란을 상대로 지역 패권을 굳히려는 계산이었다. 전쟁 자금이 절실해진 이란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1981년 1월 444일 만에 인질 석방이 성사됐다.

양국이 대치하는 와중에 전쟁까지 겹치자 배럴당 12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는 40달러까지 치솟았다.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에너지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도 1980년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다. 그해 말 S&P500 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은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지수 비중은 28%까지 확대됐다. 경

제 전반이 고통받는 가운데 특정 섹터가 지수 상승을 홀로 견인한 셈이다.

지금도 비슷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를 장악한 하이퍼스케일러 다섯 곳이 주가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쏠림 현상은 1980년 보다 심하다. 당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에너지 회사는 7개였지만 현재는 AI 관련 기술주 8개가 상위 10위 안에 포진해 있다.

그러나 1980년의 강세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14%에 달하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21%로 올렸다. 경기는 침체에 빠졌고 기업 실적도 악화했다. 그 여파로 1982년 상반기 주가지수는 21% 하락했다.

최근 미 증시의 신고가 행진은 강력한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와 비용 상승이 누적돼 소수 주도주의 실적이 꺾이면 전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적 괴로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관세 이야기』 저자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703.486.6082

<p>알링턴 싱글홈 \$2,099,000</p> <p>5bd, 6bt, 4275sf, 2026년 신축건물, RT-50 가까운 지역</p>	<p>메나사스 싱글홈 \$840,000</p> <p>Pending</p> <p>5bd, 3.5bt, UVA PG 메디칼센터 주변</p>	<p>메나사스 타운홈 \$650,000</p> <p>Pending</p> <p>4bd, 4bt, 2676sf, 2018년 브레들리 스퀘어</p>
<p>페어팩스 신축 콘도 \$664,000</p> <p>Under Contract</p> <p>3bd, 2.5bt, 2481sf, 2026년 6월 완공 예정 웨스트필드지역</p>	<p>페어팩스 싱글홈 \$955,500 Closed</p> <p>4bd, 3bt, 3038sf, 우승하이 도보거리 \$25,500+판매</p>	<p>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656,000 Closed</p> <p>4bd, 4bt, 하이스쿨 주변 \$26,000+판매</p>

장미원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

VA/DC Office (Vienna Tysons)
438 Maple Ave. E, Vienna, VA 22018

MD Office (One Bethesda)
7373 Wisconsin Ave. #1700, Bethesda, MD 20814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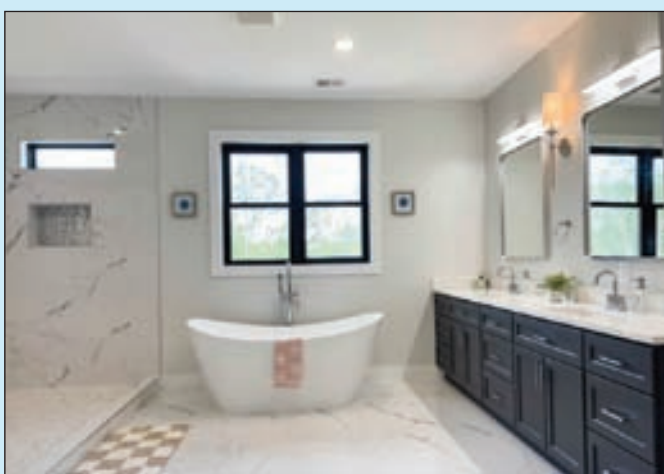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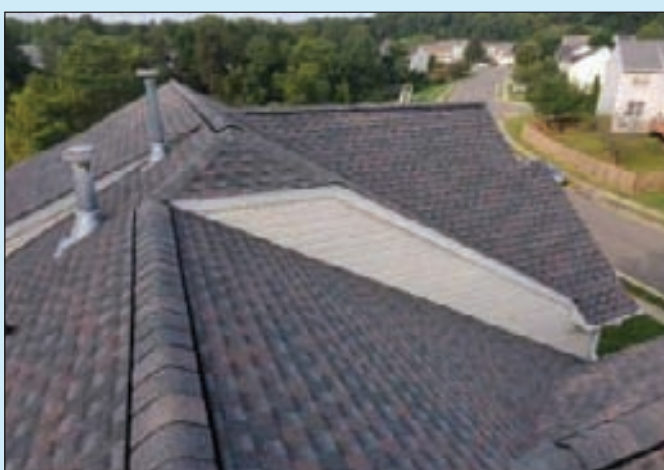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오클라호마시티, 4연승으로 서부 4강 선착

덴버, 미네소타에 2승 3패 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 선더가 4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4강전에 선착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27일 애리조나주 모기지 매치업 센터에서 열린 서부 콘퍼런스 8강 4차전에서 사이 길저스알렉산더(31점)와 쉿 홈그렌(24점)을 앞세워 피닉스 선스를 131-122로 물리쳤다.

4연승을 거둔 오클라호마시티는 LA 레이커스-휴스턴 로키츠 경기의 승자와 4강에서 격돌한다.

홈그렌은 야투 16개 중 9개를 성공하고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며 골 밑을 장악했다.

길저스알렉산더도 야투 17개 중 10개를 넣는 등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한때 15점 차까지 밀렸던 피닉스는 3쿼터 데빈 부커(24점)를 앞세워 106-98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시티는 케이스 윌리엄스의 3점슛으로 응수하며 다시 점수

차를 벌려 승리를 지켰다.

같은 서부 콘퍼런스의 덴버 너기츠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25-113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들며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다. 덴버의 간판스타 니콜라 요키치는 27점, 16어시스트, 12리바운드의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던 팀을 구해냈다.

6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미네소타는 4강 진출에 1승만을 남겨 놓았지만 주전 앤서니 에드워즈와 단테 디빈첸조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해 불안감이 남았다.

동부 콘퍼런스 8번 시드인 올랜도 매직은 1번 시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94-88로 꺾고 3승 1패를 기록, 1승만 추가하면 4강 진출한다.

NBA 역사상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꺾은 것은 일곱번이 있었는데, 2003년부터 7전4승제가 된 이후에는 내차례 밖에 없었다.

두 팀은 오늘(29일) 디트로이트에서 5차전을 치른다.



NBA '괴물 신인' 플래그

매버릭스 2m 6cm의 괴물 포워드 18세 40득점 신화에 신인왕 영예

델러스 매버릭스의 '괴물 신인' 쿠퍼 플래그(미국·2m6cm·사진)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프로농구(NBA) 2025~26시즌 최고의 신인 선수로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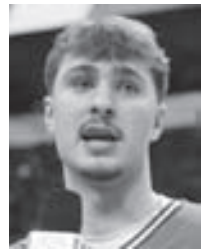
NBA 사무국은 27일 "만 19세의 플래그가 신인 선수 결선 투표에서 같은 듀크대 출신의 콘 크니플(샬럿 호니츠)

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100명의 기자와 방송인들로 구성된 투표단에서 플래그는 크리플을 26점 차로 따돌렸다. 플래그는 56개의 1위 표를, 크리플은 44개의 1위 표를 받았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델러스에 입단한 플래그는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평균 21.0점, 5.4리바운드, 4.5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

쳤다. 지난해 12월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42점을 몰아쳐 18세 선수로는 NBA 최초로 한 경기 40점대 득점을 올린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키 2m6cm의 포워드 플래그는 득점은 물론 리바운드·스틸·블록 등 수비 능력까지 견비해 어릴 때부터 각종



김혜성, 2타수 무안타 침묵

7회 대타 교체... 실책도 한 개

김혜성(27·LA 다저스·사진)이 이틀 연속 침묵했다.

김혜성은 27일 LA 유니클로 필드 옛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한 김혜성은 시즌 타율이 0.333에서 0.313(47타수 15안타)으로 떨어졌다. 변함없이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혜성은 2회말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다저스가 2-1로 앞선 4회말 2사 1, 3루에서는 2루수 땅볼로 잡혀 득점 기

회를 살리지 못했다.

7회말 공격에서는 좌완 투수 앤드루 나르디가 교체 투입되자 대타 알렉스 콜과 교체되면서 경기에서 빠졌다.

이날 김혜성은 수비에서 한 차례 실수를 했다.

4회초 2사 만루에서 마이애미 허비



상을 휩쓸었다. BQ(농구지능)까지 뛰어난 판단력도 탁월하다. "반세기 만에 탄생한 래리 버드"로 불리는 이유다. 플래그는 고교를 1년 조기 졸업해 지난해 듀크대에 진학했다. 신입생 플래그는 지난 3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에서 듀크대를 4강으로 이끌었다.

마블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를 닮은 그는 구름 팬을 몰고 다니며 스타성도 입증했다. 플래그는 이번 시즌은 예측했던 것과 달리 진행됐다 "며" 압박감에 적응하면서 편하게 시즌을

재정 위기설 LIV골프, 6월 대회 연기할 듯 뉴올리언스 TV 보도

재정 위기설이 나오는 LIV골프가 오는 6월 예정된 미국 뉴올리언스 대회를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올리언스 TV 방송국 WDSU는 현지시간 6월 25일부터 나흘간 루이지애나의 바이우 오크스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대회를 올해 하반기로 옮기기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LIV골프는 대회 연기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WDSU는 뉴올리언스의 높은 기온, 같은 기간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로 인한 관중 동원과 시청률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

더욱이 LIV골프를 후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회의 정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isystems.com/k1

intelis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teve: So how was lunch with George? Did you get him to talk?
스티브: 그레 조지와 점심 어땠어? 말문은 트게 했어?
Matthew: It was good. We talked a little.
매튜: 좋았어요. 조금은 얘기 나눴어요.
Steve: Really? How did you do that? He is a loner.
스티브: 그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인데.
Matthew: We just talked about work.

매튜: 그냥일 얘기 했어요.
Steve: He opened up?
스티브: 터놓고 얘기를 해?
Matthew: I wouldn't say "he opened up". We just talked about work and the company. That's all.
매튜: 터놓고 얘기했다고 말하긴 그렇고요. 그냥 일 얘기 회사 얘기 했어요. 그게 다예요.
Steve: That's the most he's talked about with anybody.
스티브: 조지는 누구하고도 그 정도 얘기한 적이

get (someone) to (do something); ~하도록 설득하다

(Steve is talking to Matthew a new worker after Matthew just had lunch with another worker...)
(신입사원 매튜가 다른 직원과 점심을 마치고 스티브가 매튜와 이야기를 나눈다.)

없어
기억할만한 표현
- (one) is a loner: (누구는) 외톨이야.
"He was a loner in high school. But in college he was a lot friendlier."
(그 사람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외톨이였는데 대학에선 엄청 사교적이었어.)
- (one) opens up: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It took me two hours to get him to talk but he finally

opened up."
(그 사람 말문 열게 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결국은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
- the right setting: (무엇을 하기에) 최적의 좋은 상황.
"I'm waiting for the right setting to ask her to marry me. I don't want to ask her on the bus going to work."
(그녀한테 청혼하기 제일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 출근 버스 안에서 청혼하긴 싫거든.)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아홉째 달. ~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가로수에 나뭇잎은 무성해도/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이 지고(패티집) (3)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적용 (5)격식을 갖추어 밤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칠첩 ~ (7)점심 (8)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10)개인의 돈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 (11)뽕 (12)아내의 여자 동생 (14)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15)따돌리는 일 (16)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 (18)배꼽 아래쪽의 배 부분 (19)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20)풍수지리설에 따라 집터나 밭자리 따위를 가려서 고르는 사람 (21)병이나 강통 따위의 뚜껑을 따는 물건 (23)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24)짐승을 잡아어서 밧을 피. 식어서 굳어진 덩어리를 국이나 찌개 따위의 재료로 쓴다 (25)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27)하늘의 한가운데 (28)점심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릇 (29)어른의 밥 (30)말리거나 절이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성한 물고기

세로열쇠

(1)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심□ (2)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 (3)다 써서 없어짐. 데이터가 다 ~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4)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공덕.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공덕 하였으나 목마른 이 물을 주어 ~ 하였으나 (5)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 (6)첫 먹이의 삶에 채워져 있어 (9)정성으로 내는 돈 (11)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시비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남의 일에 자주 ~하지 마라 (13)뒤통수나 앞이마의 한가운데에 골을 따라 아래로 뽕뽕하게 내린 머리털 (14)자매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쪽 여자 (15)갔다 돌아옴 (17)먹은 음식물을 포함 (18)얼굴의 광대뼈 아래쪽. ~이 뺨가름한 얼굴에 콧날이 준수한 그 (20)매우 더더워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 (22)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 (23)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24)노래나 구령 따위를 맨 먼저 부름 (25)마을 (26)수입과 지출 (27)많은 사람. 모든 살아 있는 무리

스도쿠

		2		3	5	9	1	7
3		9	4	1	2			8
					7	2	3	4
2		3	1					9
7	4					3	5	6
		8				4		
9			3	8		1		
1	5					8	7	3
	3					6		



자료제공=골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6	9	1	7	5	4	8	3
8	7	8	6	4	2	9	5	1
5	4	1	9	8	3	7	2	6
1	2	4	3	9	7	8	6	5
9	5	3	8	2	6	1	4	7
6	8	7	4	5	1	3	9	2
4	3	2	7	6	8	5	1	9
8	9	5	2	1	4	6	7	3
7	1	6	5	3	9	2	8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4월 구인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십니다.

- 유스그룹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 소명 있는 분
-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 소명 있는 분

합법 체류자로 사진 첨부 이력서 stmkumc@gmail.com으로 4월 15일까지 송부바랍니다.

운전기사님 모십니다

본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운전기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모집분야: 운전기사 1명
- 주요사역: 교회차량운행(15인승)
- 사역내용: 한달 4~5회(매 주일 예배 전후)
- 자격요건: 취업 결격사유 없는 운전면허소유자
- 사 레: 월 \$800.00
- 접수방법: 이메일 wbs7540@gmail.com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 접수마감: 4월 15일 5:00 pm

알링턴한인교회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저희 회사는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회사로 냉장·냉동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office@gmail.com

*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좌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 구인

한식당 헤반 (HYEBAN)에서 직원 모집

-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ch.office@gmail.com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 풀타임 운전하실분
- 주방 보조
▶410-850-4059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중고 매매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싱글/타운/방 렌트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모,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모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2층방 렌트
유모,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번, 쿠팡,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쿠팡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쿠팡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퀘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번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 경력 무관
-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통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투어 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 센터빌 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 언어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 (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모집합니다
▶201-417-5350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식

헤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레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 은퇴관계 매매
★ 좋은 조건
★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전화 or 문자
703.937.7261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 내 New Macy's 옆에 위치
JC Penney, Macy's
SUSHI ON
New Macy's 127
COURTYARD
JJ Watch & Jewelry Precise
Lord & Taylor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중앙일보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하시스시 직원 구합니다. -스시 쉐프, 서버 -주말 파트타임 가능 -스시 배우시고 싶은 초보자도 가능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슈어 풀타임 (유/무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기타 구인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크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합니다. 델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정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경험있으신 간병인 구합니다. 영어 약간 타이슨스 코너 202-860-7680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2.5, 차고2, 풀린 파월초, 마루, 리모

델링, 팻가능, 66/28/286/29/50 교통요지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울 리모델링, 주차공간 충분, 팻가능 571-214-0404

1. 센터빌 롯데, H마트 근처 2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500 2. 센터빌 롯데, H마트 근처 1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000 240-271-1879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트한 부엌 (그래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킹 다수, 교통 편리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트 근처, 교통 편리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방 렌트

애난데일 방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 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비 571-205-0903

로트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1-95 1마일 거리, 가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조지메이슨 근처 조용한 싱글 하우스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 240-271-187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비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렌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턴 싱글하우스 반 지하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하나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장고 회 근처 싱글 \$1,099,000 방3, 화3, 5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79,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튼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1. 캔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4, 화4.5, 차고2, 큰덕, 최고 학군 (포플라 트리츠, 락키런 미들) 새 지붕 및 HVAC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바닥 업그레이드, 잘 관리된 집
2. 헌튼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 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케이프 콘도 \$39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예!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3월 15일까지
10% 글루밍 세일
및 액세서리 선물
등!!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방2, 화2, 콜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중심
▶571-239-6054

1. 패어팩스 스톤게이트 콘도 \$438,000
방2, 화2, 차고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워 초) 좋고, 교통 & 생활 편리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 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1. 플스처치 콘도 \$210,000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 클럽튼 콘도 \$385,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진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알링턴 싱글홈 \$2,099,000
방5, 화6, 4,275sf, 2026년 신축 하우스
2. 메나사스 싱글홈 \$840,000
방5, 화3.5, UVA PG 메디컬 센터 근처
3. 패어팩스 싱글홈 \$930,000
방4, 화3, 3038sf, 우순하이스쿨 도보거리, 집 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 타운 \$680,000
방4, 화2.5, 차고2, End Unit
3. 패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4.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1
▶703-919-0472

1.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패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 2, 2018년, 로빈슨 하이스쿨 좋은 위치에 전반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패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1, 1999년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센터빌 타운홈 \$873,000
방3, 화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웨스트필드 하이스쿨
5. 패어팩스 타운홈 \$87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2, 2013년, 법원 근처, 아주 넓은 구조, 우순 하이 학군
▶703-899-8999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13년된 고급 타운홈 넓고 잘 꾸며짐
3. 엘리컷시타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 포트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사업체 매매

40년 상업중인 테일러스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퀴티코 VA, 군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sf \$1.1M

2. 패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sf, 1층 대로변, 포트맥 야외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태포드)
옷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시타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테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멜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개강
-4월14일 (화) 개강
-수업료 \$350 (교재비 \$100)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합격 후 10주 실전 교육, 한글 교재와 문제 풀이
▶703-899-8999 / 410-417-7080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대 매우 양호
703-618-7924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크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델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정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데크,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루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데크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 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방법:
E-mail: Sdme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우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포토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품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장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멋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팎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
Korean style chicken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매매 기타

구인

**10년에 한번 나오는
돈버는 세탁소**
증가주 Santa Cruz
가격 \$869,000+Inv.
작년 연매상 \$920,000
월넷 \$40,000 이상
매상은 계속 증가중
셔츠 5.95, 바지 15
투피스 31.45 스웨터 16.75
****2년후 1마일내
1200유닛하우스 들어옴
AJ Singh 영어 408-646-1030
주인 (Kim) 831-476-4589

남성용품 20년
미전국도매상
Gas Station, 7-eleven
공장도 가격, 타주직송
Self제작도움
(818)533-478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품질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리얼리티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블 터치 (213)675-6877

구인·주택 사업체 매매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HELLOKTOWN.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GLOBAL MBA
2026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17 - APRIL 21

Application SUBMIT ONLINE

+82-2-2123-3254 gmba.admissions.ysb@yonsei.ac.kr mba.yonsei.ac.kr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장실 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독점 Clifton 콘도

호수를 품고있는 멋진 단지, 방2, 화장2, 완전히 업데이트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385,000



독점 Falls Church 콘도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10,000



독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